

# 시우림

2026·제3호

문학동우회 시우림

## 우보천리, 동행만리를 꿈꾸며

회장 최상경



처음 ‘동인지’를 만들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은 막연한 꿈에 가까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글을 써오던 우리가 하나의 책으로 만난다는 일은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원고를 모으는 일부터가 쉽지 않았고, 서로의 글을 읽고 의견을 나누는 과정 역시 조심스럽고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그 낯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함께 쓴다’는 의미를 배워갔습니다.

편집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했습니다. 원고의 순서를 정하는 일, 작품 간의 흐름을 고려하는 일, 맞춤법과 띄어쓰기 하나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일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또 다른 창작의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각자의 문체와 개성을 살리면서도 한 권의 책으로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일이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문장을 고치는 순간, 그것이 다듬음인지 훼손인지 경계에서 있는 듯한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함께’였기 때

문입니다. 혼자였다면 지나쳤을 문장이 다시 살아나고, 익숙했던 표현이 새롭게 보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서로의 글을 통해 각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때로는 위로를 받고, 때로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학이 단지 개인의 표현을 넘어, 관계 속에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들이었습니다.

시우림!

동인지의 제목을 정하는 일 또한 오래 남는 기억입니다. 여러 의견이 오가고, 각자의 의미가 담긴 단어들이 부딪히면서 결국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시우림」은 시우들이 머무는 숲 또는 시의 비가 내리는 숲, 시를 우린 다 등 중의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단순한 표지가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의 방향을 담고 있는 작은 선언처럼 자리매김하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늦게 만난 학우들과 함께 하는 시창작 수업시간, 시간은 결코 그저 지나가는 법이 없어 사방에 켜켜이 흔적을 남깁니다. 시의 숲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우리들, 산에서 만난 이들은 모두 정겹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주 보며 웃다가 침묵하다가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며 해가 바뀌고 창작 노트는 점점 두꺼워지고 시의 숲도 깊숙한 몸을 엽니다. 지척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새소리, 숨소리조차 향기로운 바람의 길을 따라 스스로의 땀방울 자양분 삼아 가는 길,

시우림이 발족된 지 삼 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사회 환원 사업으로 <여수공항 북 콘서트>, 윤삼현 교수 초청 문학 강좌, 지역



지도교수 이 선 애

작가 문학관 탐방, 신춘문예 당선 1명, 전남백일장 및 크고 작은 문학상 수상 5명, 개인 시집 발간 5명, 순천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수혜, 순천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전남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등 많은 성과를 손꼽아 봅니다.

이번 호는 일부 시 지원금을 받아 한껏 고무된 기분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시우님들과 <시우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교수 이 선 애

## 넝쿨장미를 베끼다

지도교수 이 선 애

정원은 뒤집힌 수틀  
계절은 제 몸을 풀어  
천천히 무늬를 수놓는다

거꾸로 흐르는 바람  
썩어 버린 씨앗 입속에서  
봄이 먼저 피를 문다

철조망과 돌담 사이  
이 길이 맞을까, 저 길은 막다른 골목일까  
흰 줄로 꿰어진 발자국들  
태양은 오늘을 복사해 내일을 베끼고  
돌아나는 날 것의 문장들

검은 흙은 더 비옥해지고  
전정가위를 낀 손끝에서  
식구食口는 자꾸 시구詩口로 오독된다

비명처럼  
쇼펜하우어의 입술이 떠다니고  
살을 찌르는 이름들  
그 마디 마디 호명을 한다

더 높이 철조망을 넘어가며  
제 피에 섞어버린 지독한 향기  
오월은 끝내 나를 찢어  
나를 넘어서는 것만이 자격이라는 듯  
피어나는 것이 아닌 자라나는 가시

상처를 달고 피어난 나의 위버멘쉬!

※ 작가의 의도에 따라 작품의 보조동사와 합성명사는 띄어쓰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_ 발간사\_시우림 회장 최상경

4\_ 권두언\_지도교수 이선애

6\_ 권두시\_지도교수 이선애

10\_ 회원활동 이모저모

16\_ 회원 신간안내

23\_ 회원 대외 수상작

박해달, 문정서, 정현성, 김성곤, 최상경, 최승민, 김성곤, 이영옥, 조수연

## 시

50\_ | 명인아 | 작은 보름 외 5편

58\_ | 이수미 | 옆드린 V 외 5편

69\_ | 김성곤 | 개서어 외 5편

78\_ | 박해달 | 여름 일지 외 3편

82\_ | 최상경 | 하얀 이별 외 5편

92\_ | 최승민 | 목련 외 5편

103\_ | 김용기 | 빛에 닿지 못한 손 외 5편

116\_ | 정현성 | 순천만 초대장 외 5편

127\_ | 조수연 | 또 다른 시작 외 5편

136\_ | 김정수 | 물속에서 잠들다 외 5편

142\_ | 윤석미 | 열 많은 밤 외 5편

154\_ | 최학운 | 모과 외 5편

163\_ | 하정인 | 그 시간 이후 외 5편

## 수필

176\_ | 이영옥 | 기억의 습지, 별교에서 외 1편

## 시 창작반 특집

186\_ | 문정서 | 거미집 단상 외 3편

192\_ | 이 축 | 도둑 숨 외 1편

194\_ | 김진철 | 알람 소리로 터진 봄 單子 외 1편

200\_ | 차복순 | 낯선 그녀 외 1편

204\_ | 윤기옥 | 정하신 때 피는 꽃 외 1편

208\_ | 정미현 | 정원이 주는 것 외 2편

213\_ | 김영화 | 노오란 시간 외 1편

217\_ | 김미영 | 장을 주오 외 1편

220\_ 시우림 연혁

221\_ 시우림 회칙

225\_ 시우림 회원명단



\* 표지화 : 이충연 「숲-평화」



◀ 전남백일장 수상  
(2024.12.07.)  
회원 3명



▶ 여수공항 북콘서트  
(2025.08.26.)



▶ 전남백일장 수상  
(2024.12.07.)



◀ 여수공항 북콘서트  
(2025.08.26.)



◀ 별교 태백산맥  
문학관 문학기행  
(2025.05.24.)



▶ 순천문학관 문학기행  
(2025.11.15.)



◁순천여성문학회  
주최 시낭송  
(2025.11.14.)



◁회원 시집  
출판기념회  
(2025.05.31.)



2025년 총회▷  
(2025.12.09.)



◁회원 수필집  
출판기념회  
(2025.09.26.)



◁회원 시집  
출판기념회  
(2025.05.31.)



◁회원 시집  
출판기념회  
(2025.09.26.)



◁회원 합평시  
(2026.04.07.)



◁윤삼현 시인  
초청 문학강좌  
(2026.04.14.)



◁회원 축하행사  
(2026.05.12.)



◁별량대치마을  
전통체험학습  
(2026.0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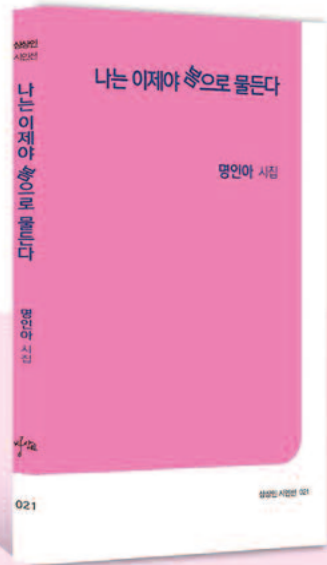
◁윤삼현 시인  
초청 문학강좌  
(2026.04.14.)



◁별량대치마을  
전통체험학습  
(2026.05.09.)

명인아 시집

나는 이제야  
봄으로 물든다



명인아의 시의 존재론적 기원은 ‘그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나아가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서의 상형인 ‘그늘’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시는 이별과 죽음과 소멸로 인한 상실감과 균열을 벗어나 충만한 삶의로의 변형을 꾀합니다.

작위적이지 않은 그의 시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지 않은 음식처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추스리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네요. 순수하고 선량한 서정적 위로의 성취가 돋보이는 시집입니다.

-신상조(문학평론가)

128\*205 | 106쪽 | 10,000원 | 2022년 9월 29일 펴냄  
도서출판 상상인 | ISBN 979-11-91085-70-9(03810)

박해달 시집

꽃인줄  
모르고 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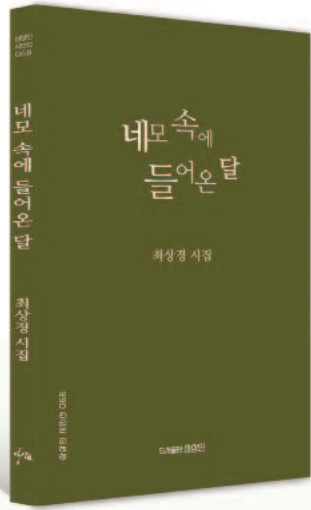
박해달은 결핍의 서사와 풍요의 서사가 동시에 존재함을 주목한다. 온 세상이 결핍뿐이라면 그 결핍은 이미 결핍이 아니며 결핍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오로지 차이만이 의미를 생산한다. 박해달의 시들은 한쪽에는 결핍의 눈물을 다른 한쪽엔 풍요의 신화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저울 같다. 결핍과 풍요는 서로를 비추며 서로의 의미를 깊게 한다. 풍요는 결핍 때문에 더욱 풍요로우며, 결핍은 풍요 때문에 더욱 가난하다.

-오민석(문학평론가/단국대 교수)

128\*205 | 120쪽 | 10,000원 | 2023년 7월 7일 펴냄  
도서출판 상상인 | ISBN 979-11-93093-07-8(03810)

최상경 시집

# 네모속에 들어온 달



과거의 아름다운 순간이 다른 아닌 현재의 노래임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우리의 언어가 입은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해 야기된 실패한 경험의 순간이 어떻게 지금 아름다움을 잉태하는지 보게 된다. 그것이 최상경의 시가 아름다움으로 구조해 낸 시의 신호들이며, 그 신호들로 이루어진 비밀의 서신인 것이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여전히 멀다. 그럼에도 다시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도착할 계절이다.

-김학중(시인)

그는 자신의 체온으로 언 땅을 녹이는 불꽃처럼, 가슴 터지는 사랑을 가졌다. 매 순간이 기적이라서 '네모'는 때로 숨 쉬는 우주가 되기도 하고, 때로 "네모난 책/그 속으로 구겨 넣어지는 아이들"이 되기도 하고 "네모난 내게 들어와 사는 꽃잎들"이 되기도 한다. 언어가 닿지 않는 너머의 경계를 넘나든다. 한순간도 같지 않은 일상의 질문들, 그의 사유들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자재하다.

-이선애(시인)

128\*205 | 156쪽 | 12,000원 | 2025년 5월 10일 펴냄  
 도서출판 상상인 | ISBN 979-11-93093-90-0(03810)

김성곤 수필집

# 토란꽃 향기가 필 때



문정서 시집

# 야생의 여름을 주세요



이 시집 『야생의 여름을 주세요』는 상처입은 세계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을 위한 치유의 언어다. 문정서 시인은 이 시집을 통해 사회의 가장 자리에 있는 이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갇힌 이들을 한 편 한 편 시로 불러내며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시집 곳곳에서 발견되는 사회의식과 이타적 태도는 문정서 시의 윤리적 깊이를 형성하고 있다. 그는 부조리한 세상, 뒤집힌 질서 속에서 고통받는 타자를 외면하지 않고, 거꾸로 뒤집힌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려 애쓴다. 또한, 문정서 시인의 시는 약자와 소외된 존재에 대한 단순한 연민이나 동정에서 멈추지 않는다. 그의 시는 상처의 자리에 평화의 씨앗을 심고, 이 땅의 야생의 여름을 간절히 기원한다.  
-황정신(시인/문학평론가)

후포항 카페리 한 척도 점이라고 했다. 점은 흔적이고 한 사람의 품보다 작고도 거대하고 아프고도 아름답다. 문정서 시인만의 현실적 경험을 토대로 한 서사를 보여준다. 그녀의 에피소드는 우리 모두의 정신적 상처이고, 죽음을 가진 몸 앞에서의 겸허함을 가지게 하며, 본래의 자리를 돋보이게 한다. 『야생의 여름을 주세요』는 “포연 가득한 지구에 한 사람 툄립을 띄워 주세요”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이선애(시인)

128\*205 | 114쪽 | 12,000원 | 2025년 7월 15일 펴냄  
도서출판 상상인 | ISBN 979-11-7490-000-5(03810)

학교에 가지요

# 시창작반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 일시 : 매주 화요일(19시~21시)
- | 장소 : 평생교육원 3층(301호)
- | 강사 : 이선애 교수(시인)
- | 교수학습방법 : 시창작강의, 합평시

※시창작반 수료후에는 『시우림』 문학 동인회에서 활동합니다.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시우림



■ 작가 이충연(서양화가)

- | 순천미술협회 회장
- | 순천미술대전 운영위원장 역임
- | 광주시전, 전남도전, 순천미술대전, 섬진강미술대전 등 심사역임
- | 교직 경력(34년)
- | (현)한국미협회원, 순천미협회원, 청조회, 원미회, 화요회 등 그룹활동

■ 작품소개

- | 제목: 숲-평화
- | 숲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나무 등 형상을 단순화하면서 청색의 숲사이로 강렬한 노랑색이 대비되며 생명을 표현한 작품

# 회원 대외 수상작

박해달  
문정서  
정현성  
김성곤  
최상경  
최승민  
김성곤  
이영옥  
조수연

## 열려라 바위!<sup>1)</sup>

박해달

똑,  
똑,  
똑,  
물방울 하나가 쉬지 않고 바위를 두드렸겠지

처음엔  
작고 희미한  
노크였을 거야

똑,  
똑,  
똑,  
똑,  
풀씨가 날아들고 이끼가 번지고부터

꿈쩍 않던 바위도  
마음을 연 거야  
알리바바의 동굴처럼

그렇지 않고서야  
저 단단한 바위가  
어떻게 풀꽃들을 피워낼 수 있겠니?

### [AI와 함께하는 작품 분석]

#### ▷「열려라 바위!」를 읽는 맛

이 동시는 "작고 약한 것"이 "단단한 것"을 바꾸는 과정을 아주 짧고 선명하게 보여준다. 물방울의 반복(똑, 똑, 똑)이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이 결국 바위의 마음을 연다. 그래서 이 시의 핵심은 힘이 아니라 지속이다.

#### ▷제목이 여는 문

"열려라 바위!"는 주문이다. 동시에 부탁이자 선언이다. 알리바바 동굴이 "말"로 열리듯, 이 시의 바위는 "똑똑"이라는 작은 노크로 열린다. 말의 주문이 아니라 행동의 주문인 셈이다.

#### ▷장면의 흐름

##### 1. 물방울의 노크

"똑, 똑, 똑"은 소리이면서 리듬이다. 독자는 그 리듬을 따라 가며 '오래' 라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느낀다. 처음엔 "작고

1) 2026. 강원일보 신춘문에 동시 수상작.

희미한 노크"였다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 변화를 만드는 것은 거대한 한 방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보이는 시작이다.

## 2.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풀씨가 날아들고 이끼가 번지고부터" 바위의 변화는 물방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물방울이 만든 '틈'으로 씨앗과 이끼가 들어오며, 바위는 단단한 물체에서 살아 있는 자리가 된다. 변화가 '파괴'가 아니라 '생성'이라는 점이 동시다운 따뜻함이다.

## 3. 결말의 질문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풀꽃들을 피워낼 수 있겠니?" 마지막은 설명이 아니라 질문이다. 독자에게 "네가 본 풀꽃은 그냥 핀 게 아니야"라고 속삭이는 방식이다.

### ▷시어와 장치가 만드는 효과

- 반복(똑, 똑, 똑): 시간을 압축해 보여준다. 아이가 읽어도 귀에 남는다.
- 대비(물방울 vs 바위): 연약함과 단단함의 대비로 메시지가 또렷해진다.
- 의인화(바위가 마음을 연다): 자연의 변화를 마음의 변화로 옮겨와 공감을 만든다.
- 전환(풀씨·이끼) 변화의 결과가 '상처'가 아니라 '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 어항 속 물고기<sup>2)</sup>

물속 세상에도 서열이 있다

엔젤 피쉬  
청소 물고기 비파  
네온 테트라

그저 예쁜 놈  
장난치고 달아나는 놈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놈

어찌다 보이는 숨어 있는 놈  
칙칙한 검은 색이  
그를 가리기에는 더없이 좋아보인다

맑은 눈에만 보이는 그놈은  
가끔 놀림을 받고 도망쳤다가  
다시 제자리로 온다

2)어항 속 물고기, 길 위의 한가위 : 2023년 전남백일장 장원.

물에서 만난 물고기  
헉헉대며 작은 웅덩이를 찾아 헤맨다  
어디를 가나 길쭉한 병에 빨대를 꽂고 다니는  
가시광선을 쏘아대듯 사나운 눈빛

고슴도치 앞머리는 자만인 것 같지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  
세상 물정 모르는 새내기  
빠르게 제 말만 하고 사라진다

눈 한번 제대로 맞출 수 없는  
나의 반려 물고기들  
어디를 가나 그들을 만날 수 있다

## 길 위의 한가위

고향가는 길 23시간  
그땐 그랬었지

밀물처럼 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동차 행렬

음식이 넘쳐나도  
줄지어 사 먹는 식당 밥

고향의 가을 대신  
봉투 하나 가볍게 손에 들려지고

아직 남은 명절 뒤끝  
떠난 자리 메꾸려 마량항 데크를 걷는다

웃음소리 바닷물에 빠져들고  
오십 분 늦게 뜬 달님 더 밝고 차분한데

채울 길 없는 반의 반달  
툭  
잘 도착했어요  
소식 하나 떨어진다

## 파몽破夢

정현성

꿈에서 깨어나리라  
아버이 손잡고 들어선 이 세상  
나비 되어 구경하다가  
날개 가지런히 접고  
나 꿈에서 깨어나리라

남쪽으로 뺨은 가지 아래서  
하얀 구름  
가을 하늘에 그림 칠 때  
손녀 아스라한 노랫소리에  
나 꿈에서 깨어나리라

아지랑이 헤치고  
꿈 밖으로 나올 때  
배웅하는 임들에게  
나팔꽃 이슬소풍이지만  
사이좋게 즐기라 권하리라

\* 귀천(천상병), 호접몽(고사, 장자), 남가지몽(우화, 순우분)

3) 2024. 전남백일장 운문부 차하.

## 죽도봉 연가<sup>4)</sup>

김성곤

순천만 굽어보는 죽도봉에서  
떠나간 옛 여인 회상한다  
꿈도 많고 정도 많던  
그 시절

연분홍 아이는 하늘 향해 나르고  
셋노란 아이는 다소곳이 자태 자랑하고  
새빨간 아이들은 아름다운 군무 펼치는데  
활짝 웃고 떠들지 못하는 아이는  
죽도봉에서 뜨거운 눈물 뿌리네

희망을 노래하고  
꿈을 키웠던  
그 세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오늘도 내일도  
그때 그 시절 사무치게 그리워한다

행여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허구한 시간

4) 2024년 전남백일장 운문부 차하.

불갑산 꽃무릇<sup>5)</sup>

어떤 이는 죽도봉 정기 받아  
로또 일등 당첨됐다는데

로또 일등은 고사하고  
맘 편히 기댈 곳 기다리며  
허공 속을 헤엄친다  
손억과 호호의 사랑이 깃든 연자루에서  
황혼의 사랑 노래하고프다

산은 산모다

사철 배가 불러 있는 임산부  
산통産痛이 붉은 이슬을 먹는다

음력 팔월 휘영청 달이 뜬 밤  
불어진 꽃무릇은  
기억 저 너머  
묻어둔 아린 심장을 꺼낸다

누구는 별이 되고  
누구는 거문고를 켜고  
들판을 지키는 늙은 허수아비는  
무표정한 얼굴로 아침을 맞는다

차마 못다 한 고해성사는  
목구멍 속으로 기어들고  
쑥 내민 고개는 더 붉어질 수밖에

5) 2024년 영광 꽃무릇 문학제 시 부문 입선.

저기  
산통을 견뎌낸 붉은 가을이  
켜켜이 쌓인 달빛이 내게로 온다

오늘 밤에도  
나의 불갑산에는 불이 나것다

## 찰 보리처럼<sup>6)</sup>

최 승 민

찰 보리는 밝히는 법을 안다  
눌린 자리에서 더 깊게 숨 쉬고  
햇살 한 줌에도 고개를 든다

무심한 저녁 식탁 위,  
가장 먼저 퍼지던 따뜻함  
손가락 끝에 가난했던 시절이 익는다

어머니의 손이 스친 자리  
아버지의 땀이 배인 들판

말없이 다가왔고 나눌수록 많아졌으며  
씻기고 불려서 마침내 사랑이 되었다

내 인생도 찰 보리 한 줌처럼  
누군가를 살게 했으면

6) 2025년 영광 찰보리 전국 창작시 대회 대상.

## 보리 개떡<sup>7)</sup>

김성곤

가마솥 아지랑이  
휘휘 저어

거북 등 손으로  
보리 개떡 하나 집어 들어  
내게 주시던 울 할매

허기 달래려  
호다닥 꿀떡

입천장 벗겨지고  
뱃속은 보리 향 가득  
달콤했던 보리 개떡

찰보리밭 거닐 때마다  
울 할매 그리워지네

7) 영광 찰보리 전국 창작시 대회 최우수상.

## 모순<sup>8)</sup>

이영욱

회사 출입문을 열고 들어서자 물컹한 뭔가가 발밑에서 감지되었다. 섬찝한 기운이 발 등을 타고 두피까지 순식간에 올라왔다. 놀라서 발을 떼보니 가늘고 긴 날갯죽지가 이미 내 발끝에서 짓이겨져 있었다. 느닷없이 가해진 통증에 녀석도 생을 포기한 듯 몸에서 이탈한 날갯죽지 옆에 쓰러져 있었다.

수일이 지났다. 잊고 있었던 녀석의 정체를 상기시키는 괴물체와 다시 사무실 안에서 맞닥뜨렸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의 존재를 포착하고는 잼싸게 공중을 선회하여 어딘가로 몸을 감추었다. 놀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린 서로를 불신하는 것에서부터 공포를 자아냈다.

말벌이었다. 나의 근무지는 공단지역이라 삭막하고 메마른 곳이다. 먹이가 넉넉지 않은 이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을까. 천적을 피해 날다가 그들만의 통신수단에 장애가 생겨 군단에서 이탈했을까, 녀석의 처지야 어찌 됐건 이 공간에는 나와 녀석 단둘뿐이다. 서로의 존재를 알아버린 한 공포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끝난다. 아니 가장 이상적인 것은 공격하

8) 2024. 전남백일장 산문부 차상.

지 않고 서로의 처지를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이다. 태생 자체가 다른 개체여서 말이 통할 리 없다. 생태 질서의 주도권을 가진 인간으로서 자비를 베풀어 창문을 열어볼까. 자, 너에게 자유를 줄 테니 어서 날아가거라. 먹이사슬이 풍부한 자연으로 돌아가 거라. 여긴 이미 오염된 공기와 인정이 존재하지 않는 치열한 곳 이란다. 득이 되면 살리고 해가 되면 가차 없이 죽이는 살벌한 곳 이란다. 가거라. 훨훨...

나의 망상은 오래가지 못했다. 성가신 일이었다. 현실은 나로부터 녀석을 격리하는 일이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이처럼 사소한 미물에 공포를 느끼다니 인간의 수치심이 아닐 수 없다. 센척해보지만 무서웠다. 평화주의자인 나는 누구를 해하지 못한다. 나 대신 녀석을 제거해줄 누군가가 나타나 주길 바랐다. 상황은 전혀 그럴 기미가 없다. 내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일 때쯤 묘수가 떠올랐다. 몇 해 전 독립한 아들이 집에 두고 간 전기 모기 채를 사무실에 갖다 놓은 게 생각났다. 녀석의 동태를 살피며 사물함 구석에서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들었다. 마음은 다급한데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전류는 흐르지 않았다. 건전지가 없던 사실을 몇 번의 시도 끝에 알게 되자 또다시 불안이 덮쳤다. 녀석이 어느 각도에서 나를 공격해 올지 모른다는 불편한 생각에 이대론 일을 할 수가 없다. 처리해야 할 업무가 공포처럼 겹겹이 쌓여 갔다. 건전지를 찾아야 했다. 1.5V AA임을 확인하고 사물함 곳곳을 뒤졌지만 없었다.

위기대응에 최적화된 나의 축적된 경험은 아무짝도 쓸모없었다. 나에게 행운은 적시 적기에 찾아올 리 없지 하고 좌절할 때 벽에 걸린 시계와 눈이 마주쳤다. 녀석의 출몰로 시계의 심장을 도려내지 않아도 나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다. 미안하지만 잠깐 빌려야겠다. 전기 모기 채에 시계의 심장을 장착하고 말벌과의 사투가 시작되었다. 찌지 직하고 두어 번 스파크가 일었고 시간은 공명을 뚫고 고요 속으로 잠식해 갔다. 하루 치 에너지가 한순간에 소진되었다.

다음날이었다. 이 층 사무실 외벽 바닥에 어떤 부산물들이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었다. 부산물이 떨어진 지점에서 수직으로 시선을 옮기니 촘촘하게 칸을 나눈 정교한 건축물이 차양 밑에서 지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곧 거대해질 것만 같은 말벌집이었다.

요 며칠 녀석들의 출몰이 괜히 있던 게 아니었구나. 양지바르고 안전하다고 선택한 곳일 텐데 내가 그들에게 해를 가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언짢았다. 인간은 그들의 천적이므로 같은 공간 속에서 공생할 수 없는 운명이다. 인간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보니 그들에게 최고의 포식자인 인간이란 비정한 존재일 것이다. 자칭 평화주의자라고 했던 나마저도 그들에게겐 무자비한 존재였을 것이다.

## 나의 반려식물<sup>9)</sup>

조 수 연

내가 원예치료를 시작한 지 훌쩍 10여 년이 지났다. 평생학습원에서 처음 원예치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나무의 병을 치료하는 일인 줄 알고 시작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식물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이었다. 그만둘까도 생각했는데 이왕 시작한 것이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복지센터 돌며 봉사를 시작했다. 꽃과 식물을 좋아하시는 어르신들께서 반응이 좋아 복지센터에서도 무척 만족해했다.

주제는 같으나 소재에 따라 작품이 다르게 나오는 것에도 나는 매우 매력을 느낀다. 아주 창의적이지는 못하나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스스로가 이 일을 사랑하기에 남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유하면서 보여준다. 식물 하나하나 키우는 것에 정성을 들이고 나눔을 하고 스스로 배우고... 또 배우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에는 한계가 없으며 무죄인 것 같다. 젊어서 건설회사도 운영해 봤고 여행사도 운영해 봤지만, 원예치료사만큼 신나고 재미있지는 않았다.

9) 2024년 전남백일장 산문부 차상.

원예가 주는 효용성을 적극 활용하다 보면 건강하고 행복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원예 분야 외에도 사회적, 정신적으로 재활 또는 심리상담까지 연결되어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매우 매력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식물에 대해 더 많이 파고든다. 이 식물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공부한다. 향이 이로운지, 색깔이 이로운지, 아니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본다. 이 또한 매력적이다. 누구나 모르는 것을 알게 되면 신기하면서도 뿌듯함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좋아지겠지만 나는 조금 심하지 않나 싶다.

지난해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원예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작은 텃밭에 여러 가지 허브나 루꼴라, 고수 등 열대식물과 한방에서 사용하는 당귀나 광곽향 등을 키우면서 많은 관광객에게 보다 나은 정보를 주기 위해 큰 노력을 했다. 그 결과 텃밭 가꾸는 법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도 생기고 허브로 차를 만들어 나눠 드렸더니 만드는 법을 배우러 먼 길마다 하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다. 대구에서 오시는 한 부부는 매달 정원 박람회장엘 오셔서 나를 찾는다. 자기들도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고 풍성하게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매번 물어 보신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랑과 정성이 나보다는 부족하나 보네요. 그리고 여기는 순천만 국제정원입니다.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농담하면서 같이 웃

는다. 그리고 토양의 성질과 환경적인 것이 식물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르다는 것을 알려 드린다. 그렇다고 내가 식물학자처럼 식물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많이 아는 것은 아니다. 내가 적용할 수 있는 식물에 대해서 한가지라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클 뿐이다.

그동안에 원예치료사로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살아 있는 생명체의 소중함도, 나눔의 소중함도, 비록 식물들은 말은 못 하지만 서로 배려하는 마음만은 인간 못지않음을 나는 깨닫는다. 몬스테라처럼 제 잎 때문에 키 낮은 식물들이 햇빛을 못 볼까 봐 넓은 잎을 스스로 갈라놓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널리 향기를 품어 누군가를 기분 좋게 하든지 화사한 꽃으로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자신을 뽐내기에 앞서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배려하고 남을 위해 희생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 또한 한편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공짜는 절대로 없다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른다. 원예치료는 창조적 파괴가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면이기도 하다. 식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매우 다양하다. 나무 열매나 가지, 또는 마른 잎. 그리고 잡곡 등으로 예쁜 나만의 액자를 만들 수 있는 풀라주, 광황 나무를 다듬어서 하트모양이나 곰돌이 모양으로 정원을 예쁘게 만들거나 이끼를 사용해서 코끼리나 토끼 등을 만들 수 있는 토피어리. 마른 나뭇가지를 엮어서 가을을 물씬

풍기게끔 하는 걸이형 크란츠, 투명한 유리 항아리에 칼라스톤이나 마사토를 이용해서 아름다운 실내장식용품을 만들 수 있는 테라리움, 금이 가거나 깨진 접시에 식물을 심어, 또 다른 모습으로 탄생시키기에 적합한 디쉬가든, 식물이 가장 생생할 때 생동감을 오래 살리기위해 만드는 프리저브드 등등.

생각만 해도 벽찬 작품들을 대할 때면 끝없이 도전해야겠다는 생각밖엔 없다. 앞서서도 말했듯이 재료에 따라 각각 다른 디자인이 나오는 것은 식물을 파괴하는 일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경험하지 않으면 만족감을 느끼지 못할 것 같다. 비록 식물을 자르고 말리고 꽃과 잎을 따는 등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만 단순한 생명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면서 파괴를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다.

향긋하고 상큼한 차를 만든다든지 수면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든지, 눈을 호강시킬 수 있는 작품을 만든다든지 등등으로 인한 건강과 예술적으로 만족감을 높인다.

식물의 잎이 가진 녹색은 낙원의 이미지를 연상케 하여 우리들을 편안하고 행복감으로 이끄는 만큼 내 손끝에서 피어나는 작품으로 인해 누군가 행복과 만족감을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반려 식물들과 원예치료를 매우 사랑한다.

## 엄마꽃씨

엄마를 부르며 파아란 가을 하늘에 꽃씨를 날린다. 내가 만든 꽃씨의 이름은 바로 엄마 꽃씨다. 가슴 속 하얀 봉투에 받아두기 시작한 그 꽃씨가 오늘따라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주체 할 수 없는 그리움을 물고 날아간다. 유난히 꽃을 사랑하고 좋아하시던 엄마는 꽃에 대한 사랑이 조금 남달랐다. 보통은 작은 마당이라도 있으면 고추 심고, 상추 심고, 쑥갓 심고 텃밭 한구석에는 쪽파도 심는다. 하지만 엄마는 채소보다는 꽃 한 송이 심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아하셨다. 마당 가에 비싸고 귀한 나무보다 아기자기한 계절 꽃들이 가득히 피게 하셨다. 담장 아래 노란 개나리가 조용히 꽃망울을 터트려 봄 내음을 물씬 풍기기 시작하면 이어서 철쭉이 반갑다고 악수하며 활짝 웃는다.

여름에는 돌 틈 사이에서 키 작은 채송화가 화사하게 미소 지으며 울 밑에 선 봉숭아가 함께 행복 하자 피어나고 담장 타고 오르는 청보라빛 나팔꽃이 담장 너머 세상을 엿보기 시작한다. 이들은 울타리 안과 밖 세상을 서로의 희생으로 공유하면서 살고 있는듯하다. 청아한 하늘빛이 온 우주에 퍼지는 가을에는 마당 가에 국화 향기가 가득하게 채워진다.

국화. 노란 실국화! 엄마를 더욱더 생각나게 하는 꽃이다.

해룡 마산 마을로 이사를 하신 부모님은 동네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동네도 알고 싶은 마음에 운동 삼아 돌아다니시다가 이웃집에 노란 국화를 보고 조금 얻고자 하는 마음이 동하셨다. 그래서 술을 못 하시는 엄마는 소주 뒷병(2L) 사서 국화꽃 집을 방문 하셨다. 술과 국화 몇 가지하고 바꾸고 싶은 마음에.... 그해 겨울이 슬금슬금 다가오는 어느 날 엄마 집에 갔더니 안방에 새끼손가락 만 한 국화가 심어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여쭙보니 “아 글썄 소주 큰놈을 들고 가서 국화 몇 가지 얻을 수 없냐 했더니 겨우 저것을 주더라” 엄마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셨다.

“엄마 많이 섭섭하셔? 내가 화원에 가서 더 큰 국화 하나 사다 드릴 테니 그만 잊어요” 했더니 “아니야 저 국화는 꽃집에서 볼 수 없는 국화야. 향기도 아주 진하고” 엄마는 마당 가에 노란 실국화 받을 만드셨다. 애지중지하게 키워서 2년 후에는 딸들과 지인들에게 나눔을 하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 두 분만 사시던 시골집에 갑자기 작은 아들이 같이 살겠다고 이사를 들어왔다. 엄마는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는 작은아들이 들어 온다니 매우 좋아하셨다.

하지만 엄마의 영역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내가 부모님을 효도랍시고 제주도 여행을 보내 드렸는데 둘째 오빠는 차고지를 짓겠다고 무화과나무 한쪽과 앵두나무를 베어냈다. 제주

도에서 돌아오신 엄마는 돌이 짜고 여행 보내놓고 나서 그사에 나무를 모조리 베어냈다고 화를 무지 내셨다. ㅎㅎ그게 아닌데.... 엄마의 반응은 “죽일 놈”이다. 마당이 넓은 집이라 차고지 하나쯤은 괜찮은데....

겨울이면 붉은 입술 도톰하게 피어나는 동백과 함께 서럽게 울던 꼬맹이 조카가 생각난다. 크고 탐스럽게 맺게 하려고 어린 손녀 앞에서 작은 동백꽃을 속아 주셨나 본데 이를 본 손녀가 할머니 안 계실 때 동백꽃 봉오리를 푹푹 따 놨다가 외출에서 돌아오신 할머니로부터 꽃을 함부로 따다고 혼이 나서 서럽게 울면서 하는 말이 “저번 날에 할머니는 왜 따어?” 하고 물으니 엄마는 우는 손녀를 안아 주면서 힘이 없고 작은 봉오리는 영양분만 빨아 먹지 꽃이 예쁘게 안 피운다고 설명하신다.

그런 일이 생긴 후 일 년쯤 지났는데 엄마는 서울 이모님 댁엘 가셨다. 오랜만에 이모도 만날 겸 서울 나들이도 할 겸해서 가신 것이다. 또 집을 비우신 게 탈이다.

대지가 약 220평 정도에 가정집 하나 있으니, 마당이 상당히 넓다. 이 넓은 마당에 봄바람이 거세게 불어대면 흙먼지가 온 집 안을 뒤덮을 때가 많다. 둘째 오빠는 엄마의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시멘트로 포장했다. 화단에 돌담도 예쁘게 정비를 해 놓았고... 서울에서 내려오신 엄마는 기겁하면서 누가 이랬냐고 화를 내신다. 아무도 말을 못 하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연수 아버가

아니면 누가 그랬건는가” 그러시자 엄마가 말하기를 “이 독센이 말도 안 하고 제 맘대로 마당에 횃가루를 치면 어떡해” 여기서 독센은 엄마가 작은아들을 얘기할 때 쓰시는 애칭이다. 둘째 오빠는 말 수가 별로 없다. 묻는 말에도 대답을 잘 안 한다. 그러면서도 부모 마음을 잘 읽어주는 아들이어서 그리 부르시는 것 같다.

엄마는 사람은 땅을 밟고 살아야 하고 도심 속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오염보다 조금씩 흙먼지를 마시고 사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속상해 하신다. 마당을 포장한다는 것은 엄마의 놀이터가 그만큼 줄어들다는 생각으로 많이 섭섭해하신 엄마의 얼굴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생생하다. 성품이 조용하시고 음식과 의복을 잘 만드시는 엄마. 나눔을 좋아하시던 엄마. 지금은 머나먼 곳에서 예쁜 꽃 많이 키우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엄마 덕분에 예쁜 식물의 세계를 알게 되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원예치료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 이제 내 나이가 엄마 나이에 가까워지니 더욱더 엄마가 그리워진다. 나는 그리움으로 다시 한번 엄마 꽃씨를 받아서 봉투에 담는다. 언제쯤 엄마 꽃씨가 싹이 틀지 종종 들여다 본다.



# 시

명인아  
이수미  
김성곤  
박해달  
최상경  
최승민  
김용기  
정현성  
조수연  
김정수  
윤석미  
최학운  
하정인

## 작은 보름

명인아

잠을 자면 눈썹이 하얘진단다  
감기는 눈꺼풀 손으로 잡아 올린다  
'내 더우, 내 더우'  
대답하면 더위 가져갈까 봐  
입도 꼭 다문다

부스럼 나지 말라고  
호두 밤 땅콩 부럼을 깨고  
오곡밥에 묵은 나물을 먹는 보름  
두둥실 밝은 보름달 아래  
쥐불놀이로 용돈 두둑이 얻어 내는  
어린 시절 보름은 추억입니다

항상 곁에 있던 달  
낮에는 흰 달  
그믐에는 하현달  
모습을 바꾸며 같은 길을 걷던 달은  
사라짐이 아니라 동행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보름이 생일입니다  
이제 세 번만 더 보면

100번을 보는 보름달  
어머니가 보는 달은 남쪽에 있습니다

## 가을의 전설

먼저 보낸 것들이 붉어지는 시간  
낙엽이 은빛 동전으로  
비 되어 내리고  
가을바람이 여인과 탱고를 추며 휘도는데  
길가의 꽃무릇이 빛을 잃어간다  
진한 아메리카노 한 잔 속에  
쉽게 만났던 보랏빛이 풀리고  
작은 기척으로 다가와  
내 옆에 가만히 서는 사람  
시간은 궤도의 흔적을 남기며  
발꿈치를 들어 벽을 넘는다  
그대가 혈서로 쓴 편지  
꽃무릇  
꽃술마다 터지는 애끓는 목소리  
나는 일 없이 공중전화 부스를 열고  
수신인 없는 번호를 누른다  
데롱데롱  
뚜뚜  
몇 번이고 수화기 너머 들리는  
빨간 신호음의 숫자를 센다

## 계절은 공기에서 먼저 온다

스치는 바람이 달콤하다  
하얀목련 자목련 동백, 개나리  
빨강 노랑 흰색이 어우러져  
꾸민 봄동산  
거실 TV앞에 옮겨 왔다  
  
밭 가는 길은  
벚꽃 터널로 되어 있고  
드릅나무는 비닐로 덮여 반짝거린다  
삼키지 못한 말이  
목 안에서 굴러다니다 바람에 닿으면  
나무 위로 올라가 벚꽃이 된다  
  
밭자국 소리조차 남기지 않는 봄은  
얇은 공기의 결을 바꾸어  
어느새 우리 곁에 와 있다  
이유 없는 설렘이 가슴을 흔들 때  
매화나무가  
목련이  
개나리  
벚나무가  
꽃이 되어 몸을 흔든다

## 내 사랑은 현재 진행형

사람들은  
사랑을 심기 시작했다

불갑사, 선운사, 용천사  
집 앞 지붕로에도 심었다  
여기서 저기서 피 흘리는  
꽃무릇 사랑

꽃을 앓고  
사랑을 앓고  
만날 수 없는 사랑이  
백년이 갈까  
천년이 지속될까

이승의 삶이 그대로 저승으로 연장되어  
평화로운 윤회의 세월  
가버린 이를 그리워하며  
남겨진 이들이 찾아가는 곳

세월이 흘러도 더 그리운 인연  
대리석 쓰다듬으며

마음속 인사 나누는데  
들리지 않아도 알아듣는 듯  
대답이 온다

평화공원 돌아오는 길  
꽃무릇만큼 검붉은 그리움  
내 사랑은 현재 진행형

## 무대 위의 우쿨렐레

작은 몸통의 나뭇결  
누군가의 미소를 닮은 음색  
네 줄 길 위  
설렘이 떨리는 음색으로 지나간다

장애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음악은 소통이며 대화  
한 달에 한 번 오는 무대는  
휴가의 바다에서 건너온 파도  
정원의 꽃이며 수줍은 사랑  
시는 앵콜을 받는다

4개 현의 울림이 무대에서 떨리면  
가슴에도 전해진다  
가장 큰 기쁨  
내면의 감동은 눈동자에 머문다

## 식물성 바람이 분다

코끝을 간질이는 아지랑이 바람  
봄의 요정이 나들이 한다는 기별  
대지의 용트림도 분주하다  
마음 급한 풀꽃이 피고  
별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하늘에 피어 있는 매화는 눈부셔  
별은 땅 위의 풀꽃을 찾는다

이불 밖은 위험해  
위험해

바람이 주는 소리  
식물성 꽃바람이 분다



명 인 아

- \* 2006년 등단
- \* 그림책 <아기 구름 이야기>
- \* 시집 <나는 이제야 봄으로 물든다>
- \* 순천여성문학회원
- \* 전남여류문학회원
- \* 전남문인협회 분과위원장 역임
- \* E-mail\_myoungina0@daum.net

## 옆드린 V

이 수 미

사이 드리누운 화살표를 따라간다

비상구를 빠져나와 건물이 쏜살같이 해체되는 동안  
바람은 닳에 걸린 걸까  
덜 퍼진 우산처럼 어정쩡한 모습으로  
나를 건져내는 화살표

날카로움이 맞물리는 바람  
오늘을 설명하지 않아도 화살은  
보조개 파인 당신의 오른뺨으로 사라지네

반복되는 목적어처럼  
주머니에서 열쇠가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렸지  
누군가는 변명으로  
잘못을 매만지는 정당한 목소리

내일이 오늘로 오지 않는다면  
나는 오리나무 숲으로 떠날 것이다  
화살표를 따라 잎사귀가 길들여진 그 숲으로

서투른 직진만으로 밤을 새우던  
한쪽 팔이 떨어진 의자 옆에 앉아  
관심을 부탁하지 않는  
기다림을 기대하지 않는  
명료한 성가심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옆드린 V를  
외면했던 반항을

## 향기로운 각도

푸른 식물의 손을 피해  
계단의 향기가 구불구불해진다

백리향 밖에서 누군가는 뛰어오르고  
한발 한발 나의 선택에 맞춰 최선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하늘의 손을 놓고  
고통이 예의를 차리는 일

계단이 휘어지고 있다  
몸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각오를 접어서 데리고 온다  
울퉁불퉁한 갈증을 참으며  
어디가 아플 때마다 좀 더 꺾꺾 밟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발걸음에 맞춰 시간을 옮겨가야겠지  
발끝만 스치지 않도록

붙잡아둔 각진 날개  
방심한 어둠을 익힌다

집으로 가는 길은 뻔히 보이는데  
지나간 건지 지나친 건지  
뒤꿈치가 조금 가벼워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신어보자  
자, 오른발부터?

## 당糖 공화국

쿠키를 먹고 있었는데  
주스 한 병이 주황색 불을 흔들며 들어온다  
수면 위로 갖혀진 허공이 출렁거리고

식탁에는 말린 견과류처럼 접시가 앉아서  
매일 한 움큼의 당을 제멋대로 사라지게 해

반듯한 사람들의 기계음이 뉴스 화면 위에서 미끄러진다  
달콤한 행복을 사고 싶나요?  
친애하는 그대, 두바이로 오세요

쫘득쫘득 기름칠을 한 땅 덩어리  
어금니에 달라붙은 초콜릿 모양을 하고서

농축된 자본과 만나  
깔깔거리는 양지와 음지의 대결이 만든  
오렌지망고에이드를 먹고 더 이상 소용없어진 냄비는  
차가운 선반 바닥에서 잠이 든다

빈 공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단 맛이 나는 침을 삼키며

배에 힘을 주고  
옆구리를 꼭 누르면  
얼마 동안은 이유가 충전되는 기분이야  
호르몬은 어제보다 외롭지 않아 보여

기분의 함량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당은 우리를 구출하고도 밖으로 내팽개쳐지고  
딱딱하게 싸늘해지는데  
생각할수록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지  
끝없이 인간의 몸을 염탐하며

우리는 태어나 처음으로 만났고  
헤어질 수 없으니 고통스러울 따름이다

## 겨울숲

초록의 심벌을 거두고 숲의 여백마다 은종을 날리는 겨울이 오면 뒷산 기슭에 발목이 묶인 나무들을 찾아간다. 큰 산이 등받이가 되어 있는 그곳에 문득 의식을 차린 싸락눈이 얼어붙은 나무의 얼굴을 일일이 어루만지고 있다.

몸 밖으로 자라난 무수한 팔다리. 애쓰던 무게를 버리고 한없이 가볍고 투명한 모습으로 숲의 고요를 지키는 일은 바람조차 허락한 일이었으므로.

앞으로 땅에게 엽서를 남기고 숲의 손금이 되어버린 나뭇가지는 어둠이 가라앉을수록 하늘을 찾아가는 길이 되는가.

잊었던 풍경에 눈 뜬 나는  
회색의 겨울 숲에서 흰머리를 감추지 않아도 쉽게 하나가 된다는 슬픔에 경악한다

저 멀리 들려오는 성탄의 종소리  
아이들은 숲의 반대편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고

겨울이 지나갈 때까지  
쪽마루 기둥에 걸어 둔 빨간 멥감나무 한가지  
도망가지 못한 숲의 한 토막  
아득한 시간에 매달린 내 어린 트리

## 돌맹이

마음이 잠시 숨을 멈춘다  
빛이 경로를 잃고  
어둠이 사라지는 법을 배우는 동안

모든 시도는 사라지는 시간의 속임수  
나를 지배하는 통제는 그것을 가끔 잊어버리곤 한다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아서 손에 잡혔다가 그냥 버려지고  
버려진 줄도 모른 채 살아가는  
어딘가로 굴러갔다가 누군가의 발에 치이다가  
바람이 불면 마른 세수를 하고  
비가 오면 젖은 눈두덩이를 문지르고 입술을 앙다문 채  
떨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를 가지고 노는 게 바다라면  
돌맹이여도 괜찮겠다

탁한 진흙 속 맑은 힘 덩어리  
스스로 단단해지고

스스로 길들여지는  
사물이 되고 싶다

수평선은 그대로다  
돌맹이가 던져진 처음처럼

## 멍든 사과

어디서 찍혔는지 모를 무릎의 멍을 본다  
멍든 사과같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사에 쓸 사과가 몇 개 있다  
누가 먼저 제단으로 나가게 될지  
사과 하나를 꺼냈더니 한쪽이 물컹하게 멍들어 있다

생각에도 푸른 멍이 들 때가 있다  
도려낼 수 없는 염증처럼  
형식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잘 팔리면 좋은 사과일까  
안 팔리는 사과는 자두가 되는 것일까

한 손으로 얼굴을 지탱하고  
사과는 접시 위에서 구름이 지나가길 기다린다

나는 또다시 사과를 사고  
멍든 사과의 심장을 도려내고  
또다시 기억을 망각하고 사과를 사고 냉장고를 채우고

## 개서어

사과를 썩히고  
 그중 몇 개로 가난한 나날에 풀칠을 하고  
 새벽의 결핍을 채우고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며 그림자의 뼈를 만들고  
 둥글게 남아 있는 껍질을 따라 누울 것이다

말랑한 구름 속 혼자하는 고백 같은 명  
 이 든 채로 명을 때릴 것이다  
 그 맛을 맛본 나는  
 결코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수 미

\* 교육 행정 공무원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 회원  
 \* E-mail\_ryrak20@daum.net

서어나무로 거듭나기 위해  
 수백 년 빌고 빌었건만  
 아직 세 손가락 퍼지 못했네

손가락 하나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시원한 바람 날려 보낸지  
 삼백 년

금전산 산신령이 무심쿠려  
 앞을 쪽 찢어  
 서어나무로 만들어주면  
 좋으련만

슬픔 가득 안고  
 인고의 시간 버텨낸  
 낙안읍성 개서어나무  
 이제나 저제나 웃으며 손 펼칠까

## 푸른 피

엄동설한 모진 한파에  
숨죽여 지내더니  
따스한 햇살이  
널 꿈틀거리게 만드는구나!

연약한 세근들  
가쁜 숨 몰아쉬며  
푸른 피를 만들어  
도관을 통해 힘차게 밀어 올리니  
온몸에 푸른 피는 가득하고  
푸릇한 새순들이 살금살금 얼굴 내밀고

힘겹게 가 도관을 통해 올라온 녀석들도  
덩달아 힘을 보태니 환한 미소 짓네  
긴 겨울 참고 견디느라 수고 했다  
힘겨운 시간을 버텨오느라 비틀거리는  
너를 다독거리며 더욱 힘내라고  
영양주사 한 대 놓아주니  
하루가 번개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사람 위해 희생만 하는 나무들아  
제발 아프지 말고 무럭무럭 자라주어야 할 터인데  
말 못 하는 나무를 치료하고 가꾸는 난  
나무와 대화하며 인생과 수생을 노래한다

내일은 어떤 나무가 날 부를까

## 이쁜 괴물

월등 갈전골에  
날개를 펼친 이쁜 괴물  
하늘 향해 힘찬 날개짓  
낙락장송이 사시나무 떨듯  
흔들흔들

게릴라처럼 숨어있는  
해충 잠복지에  
과녁 표시하고  
구석구석 집중포화  
놀라 자빠지는 녀석들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낙락장송 지켜내고  
개선장군 되어 돌아오는  
요란한 이쁜 괴물의 외침  
다시 오지마라 가지마름병

천지를 요란하게 울리는  
이쁜 괴물의 날개짓  
쓰러져가는 해충들  
활짝 웃는 낙락장송

이쁜 괴물은 살포시 웃는다

## 쇠꽃 춤

무섭디무서운  
쇠꽃이 춤을 추고  
힘없고 나약한  
잡초는 쓰러져 간다  
송글송글 땀방울  
보석되어 주렁주렁  
이마에 맺힌다

먼 산에서 불어주는 뜨거운 바람  
보석이 주주룩 떨어 진다  
잡초들은 아프다 몸부림쳐도  
쇠꽃은 돌고 또 돈다

잘했다는 칭찬 소리  
힘 있는 자들의 웃음소리  
잡초들은 눈물만 주르륵

허구한 날  
뜨거운 바람 맞으며  
새봄이 오기만 기다린다

## 정원 썬 베드

푸르른 순천만 국가정원 잔디밭  
썬베드에 누워  
가슴으로 나무의 숨소리 대한다

흐느적거리는 구름  
희꾸무리한 산허리  
조용히 들려오는 나무들 숨소리  
상큼한 잔디 내음

옆자리 이름 모를 아낙네  
통 큰 반바지로 털썩 주저앉아  
핸드폰 삼매경  
나무를 찍을까  
꽃을 찍을까

허공 찾는 나의 동공은 잠들고  
가슴으로 나무의 숨소리를 찍어 본다

## 자주 목련

사랑하는 이가 그리워  
북쪽을 향해 꽃피우고  
속이 타는 걸 숨기기 위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는  
자주목련

사랑 찾지 못해 목숨 던진  
전설의 사랑  
순백의 사랑  
검붉은 사랑

새하얀 마음으로  
한 남자를 사랑하고  
검붉은 뜨거운 눈물로  
아픔을 내뿜으며  
피어났구나

이루지 못한 사랑  
슬픈 사랑  
꽃으로 피어나  
향기마저 조용 하구나

이승에서 못한 사랑  
저승에선 이루려나



童淺 김성곤

- \* 전남 순천 출생
- \* 순천대학교 정원문화산업학과 졸업
- \* 2024년~2025년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시 창작반 수료
- \* ㈜힐링나무병원&조경 대표이사
- \* 2024. 전남 백일장 운문부 차하상
- \* 2025. 영광 칠보리 전국 창작시 대회 최우수상
- \* 2025. 영광 상사화축제 수필공모전 입선
- \* 2025. 이순신 장계쓰기 대회 입선
- \* E-mail\_sunggon8023@naver.com

## 여름 일지

박해달

바스러진 여름이라고 썼다가 지운다  
한 사람이 떠나고 나는 울지 않는다  
붓물을 펴고 위태해짐을 견디는 건 신앙의 끈,  
잠들지 못한 밤들이 계절을 건너고 물 한 모금 넘기는 것조차  
살기 위한 몸부림  
몸속 세포들이 용이로 박힌다  
살아가야 할 이유는 남아있는 날만으로도 너끈한 것  
그럼에도 영혼을 갉아먹는 기억,  
단단한 벽에 갇힌 꿈의 새싹들이  
촛촛한 그물 사이를 비집고 세상을 가웃거린다  
아무렇지 않게 계절은 시작되고  
한바탕 쏟아붓는 소나기에 새의 헛바닥 같은 싹들이  
문장을 내민다  
태양의 비늘을 털어내듯 꽃송이들이 털린다  
어제는 어제 속으로  
모국어가 서툰 당신에게서 온 편지에는 비릿한 꽃잎  
우표가 붙어있다  
신의 목을 두 팔로 둘러 안고 나는 다시  
밀랍의 날개를 달아야지

## 중심

숲의 심장에 들어서 보라  
가지 끝 하늘과 땅의 경계에 조화롭게 매달린 새의 둥지  
저마다 소원을 돌덩이처럼 안고 있는 탑  
이끼 같은 마음의 더께 더 부리지 못하고  
바람이 관통하는 프레임 밖 시선  
보이지 않는 등 뒤의 평온함을 믿는 중심이 있다는 것을  
흔들려 본 사람은 안다  
흔들림 속에서도 자기만의 중심을 찾기 위해  
나를 지켜내는 영혼의 나이트를 나무처럼  
그려내고 있다는 것을

## 1004에게

이별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기억으로 머무는 방식이라지  
그리움은 아픔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의 언어라지  
많이 울어도 괜찮다고 나에게 말해줄래  
토요 너와 함께 한 모든 날이 선물이었어  
새침떼기 콩이도 곧 만나겠구나  
놀이공원에서 만난 몽이와 두두도 보겠지?  
비가 예보된 날이라 그런지 눈이 뿌애  
기차가 흐린 안개속을 지나가  
무지개 다리를 건너 별빛 왕궁에 가면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아픈 다리도 다 나아 마음껏  
뛰어다니는 평화만이 깃들기를!  
아 참! 놀다가  
네 발에 매어놓은 빨간 실 별고리에 걸어놓는거 잊지 마!  
벚꽃에 매달린 추억들이 환하게 피어나는 봄날에  
너에게 꽃편지를 띄울게

## 꽃의 씨앗은 이별

영킨 실타래 풀 듯 라일락 향기 흩날리며 그녀는 화음 속으로  
떠났다 환한 웃음이 슬퍼 남겨진 이들은 울음을 울었다 연듯빛  
의 무심한 얼굴, 그렇게 또 세상을 향해 파고들어 떠들썩한 한때  
의 진실을 희석하곤 한다 두루카페에 앉아 생각차를 마신다 생  
강의 알싸한 매운맛에 벽을 짚고 올라가는 메마른 담쟁이넝쿨  
의 목젓이 쿨링이다 카페의 인심 좋은 여주인이 한 포기 작고 흰  
은방울꽃을 내게 대면시켜 주었다 서로 다른 쪽을 위해 놓지 않  
고 있는 믿음들이 발진처럼 번진다 살아있는 이들을 위해 소리  
내어 안부를 확인하는 애처로운 몸짓이다 꽃잎이 세상의 모든  
것에 앞서는 동안 자근자근 생의 부름에 응대하며 따뜻한 눈물  
한 방울 아주 느리게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다

그녀가 나를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박 해 달

- \* 목포출생 (현 순천거주)
- \* 순천대학교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수료
- \* 시집 <꽃인 줄 모르고 핀다> (상상인.2023)
- \* 그림책<내 친구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야기열리는나무.2025)[eBook]
- \* 2026년 <신춘문예당선 동화> 동시집) 공편 (정은출판)
- \* 2026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시부문 당선
- \* 2023~2026년 동시전문지 <동시마중> 에 동시 발표
- \* 2025년 <시와동화>에 동시 발표
- \* 2025년 <시와경계> 디카시 발표
- \* 순천여성문학회 회장역임
- \* E-mail\_mi8623@naver.com

## 하얀 이별

최상경

묵직한 시계가  
가슴에 내려앉았다

퇴로는 막히고  
하얀 적들이 밀려왔다

꺾인 날갯짓  
날지 못하는 마음

어머니를 두고 나오는 길  
바다가 살아났다

요양원

갈 때보다  
돌아오는 길이 더 멀었다

차마 돌아보지 못했다

## 틈이 벌어졌다

담벼락 밑  
구불구불 논두렁 밭두렁  
겨울잠 깨우는 낮은 속삭임

노랗게 마른 마늘잎  
들뜬 보리잎  
마침내  
얼음 핏줄에 물이 돈다

언 땅은 부석부석 풀리고  
내 얼굴도 부석부석하다

사각사각  
사각지대  
밭밑에서  
밀어 올리는 숨결

소한과 대한 사이  
숨죽인 이음매  
양지바른 쪽부터  
가늘게 금이 간다

쭈뼛거리는 우수憂愁는  
우수雨水로 흘러내린다

## 빈집 1

빼앗겼다  
예고 없이 들이닥친 것이  
집안의 시계를 훔쳤다

예순여섯 번째 설

어머니는  
내 이름을 한참 만에 불렀다  
끝내 맞지 않는 호칭으로

빛나간 시선  
우리는 서로를 잠시 놓쳤다

요양원 복도는 길고  
창밖에는 눈 대신  
못다 한 말이  
복도 끝에 묶여 있었다

하얀 떡국 한 그릇  
김이 오르다 멈추고  
손가락은 허공에서 길을 잃었다

설빔은 옷걸이에 걸린 채  
입지 못한 하루를 접고

약속 없는 내일  
달력은 넘겨도  
어제에 머문다

가끔  
내가 먼저 잊을까 봐  
그 이름을 몇 번이나 부른다

## 빈집 2

옹이에도  
봄이 올까

깊게 패인 자리  
해마다 결이 더 단단해진다

오래 버틴 나무 끝에서  
바람이 먼저 울리고

틈과 틈 사이  
묵은 말들이 가루처럼 떨어진다

달력은 넘어가고  
나는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다

아픈 자리에도  
꽃이 핀다

잠시  
눈을 감는 동안  
옹이가 터졌다

## 빈집 3

방문 앞에 서서  
스위치를 켜다

방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맨몸을 드러냈다

가라앉은 먼지들이 먼저  
살아났다

익숙한 듯 서랍을 열어  
약봉지를 꺼냈다

날짜가 적힌 종이들이  
그보다 먼저  
늪어 있었다

줄고 있는 cctv  
번쩍 눈을 떴다

반가운 건지  
경계한 건지

아무도 부르지 않은 시간  
바닥을 배우기로 한다

방문 앞에 서면  
손때 묻은 문고리 너머  
된기침 소리가 날 것 같다

저녁 빛  
턱선을 넘지 못하고  
발등에 걸린다

## 홀로 오지 않은 너

내 시詩는 아직 출발하지 못한다

네모난 흰 얼굴  
일렁이는 검은 눈

좌우 106개 신호가 웅알거린다

지워지는 줄  
지우다 의심하는 칸  
구겨진 종이처럼 쓸려가는  
검은 옷의 폰트들

머릿속은 비워지지 않고  
하얗고 수북하다

깊은 자궁 속의 유영  
언제쯤 순산할 수 있을까

조금만 더 기다리기로 한다

꼭꼭 숨어  
아니라고 자꾸 아니라고  
말하는 나를 찾아

흩어진 자음과 모음

무엇이든 받아들여 보겠다는 커서  
깜박 깜박 눈을 찌른다

끝내 오고야 말 봄처럼  
분절된 문장 하나  
목구멍에 걸린다



최 상 경

- \* 전남 고흥 출생
- \*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 순천효산고등학교 교장 역임(2018~2021)
- \* 문학동우회 <시우림> 회장
- \* 2025년 전남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 \* 2025년 시집 <네모 속에 들어온 달>
- \* 2025년 시집 <만약 내가 내게로 온다면>
- \* 2026년 순천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선정
- \* E-mail\_skskchoi@hanmail.net

## 목련

최 승 민

그 애는  
1억 4천만 년 전부터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백악기의 향기를 품고  
햇살보다 조용히  
내 마음에 스며들었다

그 애는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멀리서 보면 환하고  
가까이 다가가면  
슬퍼지는 목련을 닮았다

그 애가 스쳐간 길목마다  
하얀 목련이 피었다  
꽃잎마다  
내 마음을 눌러 담았다

바라보는 것만으로  
사랑이 되는 줄 알았다

그 밤  
목련 아래에서  
나 혼자 울고 있을 때

옆 사이로  
작은 숨결이 다가와  
투명한 빛으로 속삭였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랑은 아름다워  
진심이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 오래 남아 있던 겨울이  
조금씩 녹아내렸다

닿지 못했던 손길  
부르지 못했던 이름

건네지 못한 마음은  
해마다 다시 피어난다

사랑은 지지 않기에-  
지금도 목련이 피면  
그 애가 있을 리 없는데도  
가슴이 설렌다

## 달을 잃은 밤

오늘 밤은 달이 없다  
어둠은 여전하지만  
침묵이 뿔속까지 스며든다

창밖을 오래 바라본다  
텅 빈 하늘이 내 마음 같다

누군가 내 안에서  
불을 켜다는 느낌  
그 빛은 환했으나  
늘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걸

달이 사라지자  
나는 나와 마주 앉는다

나뭇잎이 구르는 소리  
그 위에  
아무 말 없이 내려앉은 빛

어둠이 너무 깊어서  
차라리 진심이 보이던 밤

달이 없다가  
어느 순간, 달의 빛으로

## 나무

산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산의 나무라도 되기를

누군가  
기댈 수 있도록  
그늘 하나 되어주고

바람 막아주는  
낮은 울타리로 남아도 좋다

그 품  
내가 다 될 수 없다면  
내 안의 한 점 따뜻함이라도 되기를

깊은 산중  
이름도 없는 나무 하나  
그래도  
누군가 살아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는 존재

그 마음이면  
나는 더 바라지 않는다

## 비가 지나간 오후

비는 작은 요정들이었다  
회색 외투를 입고  
하늘에서 총총 뛰어내려  
세상의 먼지를 털어주었다

나뭇잎은 몰래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나 봐  
하나둘 옷깃을 털며  
춤추듯 땅으로 내려앉았다

그러다 문득  
비의 노래가 멈췄고  
세상은 조용해졌다  
마법이 끝난 것처럼

하늘은 너무 파랗지도 흐리지도 않다  
딱 이만큼의 맑음이면 좋겠어  
구름 한 조각이 속삭이듯 떠간다

아이처럼 맨발로 걷고 싶은 오후  
비에 씻긴 길 위엔  
빛이 소리 없이 스며들었다

## 붉음

빛을 기다리며 앉았다  
하얀 캔버스 위에  
붉은 불꽃이 피어난다

햇살이 스며들 듯  
사과는 서서히  
자신의 빛을 채워간다

붓끝이 지나간 자리마다  
태양빛은 춤을 추고  
그림자는 낮게 기울어진다

사과는  
붉은 농도를 완성한다

빛과 어둠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붉은 열기로 응축된 시간

이제 사과는 더 이상 사과가 아니다  
그저 하나의 존재로 놓인  
무게와 침묵

입술에 닿을 수 없는  
붉은 구 하나

영원히 탐스러운 채로  
기억 속에서 익어가는 그것은  
태양의 불꽃이다

## 시계꽃

멀어질수록 가까워지는 것을  
잡으려 했지만  
손을 펴면 언제나 비어 있었다

한 걸음 앞서 가려 해도  
늘 곁에 있었다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시간 속에  
나는 이미 서 있었다

강의실에 앉아  
작가의 이야기를 듣던 순간

이미지는 스며들고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때  
멈춰 있던 내 시간이  
조금씩 흔들렸다

## 빛에 닿지 못한 손

김 용 기

손바닥 위에 시계꽃이 피어나고  
흰 꽃잎 속  
멈춰 있던 초침이  
아주 느리게 숨을 쉬었다

노래가 끝나고  
강의실은 조용해졌다

손을 펼치면 여전히 비어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다



최 승 민

\* 가정과 일상 속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시로 기록  
\* E-mail\_choism3385@naver.com

내 마음의 정원에 신비의  
뿌리를 내리고  
예술처럼 피어난 너

떨리는 가슴을 다독이며  
조용히 너에게로 간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에서  
너의 여왕의 숨결을  
가만히 받아보고 싶다

꽃밭에 누운 너를  
흐트러질 듯 품에 안고

한 번쯤은  
빛처럼 스며들고 싶다

거친 내 손으로는  
너를 온전히 담기 어려워도

맑게 번지는 네 마음에

잠시 머물 수 있기를

다른 흙을 딛고도  
각기 영롱한 빛으로  
탄생한 청초함이여

잉크병에 잠긴 듯  
또렷하게 새겨져

캔버스에 덧입혀진  
곱디고운 파스텔의 너

비에 젖은 소녀처럼  
함초롬히 고개 드니

동산이 아니어도  
강변 낮은 모퉁이라도 좋다

네가 머무는 자리라면  
나는  
기꺼이 그곳으로 간다

결국

나는 너라는 이름의  
깊은 빛 앞에 서서  
그저 경외로 바라본다

## 늦은 달

어려서  
달은 늘 신비로웠다

보름밤이면  
마을 길 한가운데서  
처녀 총각들의 가슴을  
애타우던 밤

그때 나는  
달이 스스로  
빛나는 줄 알았다

세월이 흐른 뒤  
뒤늦게 알았다

태양의 빛을  
밤까지 품어 온다는 것을

그 빛을 받으며  
나 또한  
먼 길을 지나왔다

이제는  
어둔 밤을 밝히는  
늦은 달처럼

은은히 비추며  
나의 길을 가리라

## 어머니와 바다

파도 한 자락  
나를 굽어본다

끝없이 차오르는  
생명의 푸른 창고

밀려왔다 쓸려가는  
어머니의 자장가

가까이서  
멀어지는 숨결

어둠 속에서  
발길질하던 나를 달래듯

파도는  
몸을 밀어내고

나는  
울음으로 태어나  
이름 하나를 얻는다

하는 일마다  
파도처럼 흔들리고

품었던 것들은  
새가 되어 날아가고

수평선 너머  
잠들었던 바다는

어느 날  
용이 되어 일어나  
세상을 뒤흔든다

수많은 바다 중에서  
별처럼 빛나던  
어머니의 바다

열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빠져나가고

나는 아직  
그 물결 끝에 서 있다

## 이것이 시인지

넓은 마당 한결에서  
굼벵이처럼  
삼 년을 구르며 기어왔다

젖은 음절 사이 끼인  
숨의 흔적인지  
말처럼 슬픈비가 내린다

떠난 동생을 떠올리다  
목이 메어  
먼저 끊기는 노래

이것이 시인지  
아니면

그날 이후, 돌아오는 길  
문장은 자꾸  
내 손을 피해 흩어진다

의미의 턱에 걸려  
자꾸 앞으로 쏟아진다

옮기려 할수록  
문장은 무거워지고

비어 있는 틈 사이로  
마음이 먼저 빠져나간다

시간이 무너진 자리마다  
골이 깊어져  
무릎까지 잠긴다

언제쯤  
마른 땅 위를  
휘이휘이

가볍게  
지나갈 수 있을까

## 당신이 오는 계절

입맞춤처럼  
창가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커튼 사이로  
당신의 기척을 더듬습니다

내 가슴을 어루만져  
다시 뛰게 할

그대의 향기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소나무처럼

간설 속에서도 피어나는  
매화처럼

나도 이 자리에 서서

그대를 맞을 설렘으로  
햇살 한 줌 가슴에 안고

당신의 계절을  
버선발로 기다립니다

## 시간

시간은  
내가 어린 시절 뛰놀던 동산이다

아직 눈 안에 아른거리고  
지천에 복사꽃 말없이  
흙 향기로 스민다

초원의 심장소리  
들판은 느리게 숨 쉬고  
풀피리 불던 가느다란 숨결하나  
오래 매달려 있다

고구마 넝쿨 파 해칠때  
입가에 번지던 함박 웃음  
“어여빠라”  
서툰 노래 한 자락에도  
해는 더디게 기울었다

살을 부비던 친구들  
뽕뽕이 먼 길로 흩어지고

그 자리 말없이 지켜온 들녘이  
문득 나를 불러 세운다

손에 닿지 않게 떨어진 어린 날  
빙 돌아 다시  
나는 그 동산에 서 있다

꽃은 사랑 따라 피고 지고  
사람은 계절 따라 스쳐 가도



김 용 기

- \* 전북 전주 출생
- \* 영남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 \* 대구광역시(권역) 공업고등학교 6개교 교사 근무(1985~2022)
- \* 전라남도(권역) 공업고등학교 1개교 교사 근무(2024~현재)
- \* E-mail\_kyk20000@hanmail.net

## 순천만 초대장

정현성

갈대치마 입은 나는 순천만  
여자만과 친척이고  
좌 해넘이 우 해돋이  
지친 파도 안아준다

마음이 창살 안에 있으면 오시오  
넓은 치마 펼쳐드리리다

의자에 앉아 있어도  
멀미 나는 사람은 오시오  
갈대 사잇바람 드리리다

겨울 진객의 별장 나는 순천만  
용과 무진나그네 함께 산다

하늘 오르고 싶으면 오시오  
구름다리 건너게 해드리리다

언어술사 되고 싶으면 오시오  
날말 징검다리 놓아드리리다

혼자 아니 여럿이 와도 괜찮소  
갈대만큼 와도 괜찮소

## 순천만에 빠진 날

배반의 장미 하늘에서  
가시 화살 쏘아 내릴 때  
방공호에 들어가  
에어컨 리모컨으로  
대응 사격하는 여름날

카톡으로 징집영장 통보받고  
투구에 갑옷으로 무장하고  
동그라미 말 타고  
박차고 달려 나간다

전우들 만나  
공격지점 공유하고  
들길 이리저리  
나락이 잎새 사이 보초 서고  
물억새는 창 높이 세워  
사기를 북돋운다

물웅덩이 가르고  
오르막길 기운차게  
전진 또 전진할 때

살랑바람과 나무그늘  
휴전회담 주선해

적군은 뭉게구름 뒤에 쉬고  
아군은 we-카페에서  
넓은 창밖 순천만에 빠진다

물결은 반주하고  
팽이갈매기 여팍에  
칠계와 짱뚱어 군무로  
향꾼에 위를 향하고  
우린 위로를 받는다

오늘은  
라곰 일정이라  
알맞게 익은 쌀밥처럼  
고슬고슬하다

## 새들의 잼버리

하늘 뜻 순응하는 순천  
계족산 발원 동천  
유치산 출신 이사천 만나  
무진평야 살찌우고  
순천만 치마 펼친다

뚜르르 뼈야! 뚜르뚜르 뼈뼈야!  
큰 날개 나풀나풀 선회하면  
치마폭 안지플 비상걸려  
갈대 울타리 밤새 두르고  
흰 제복 대대인 보초 선다

시베리아 진객 입춘 필두로  
청둥오리 가창오리 쇠기러기  
군무와 합창으로 신고하고  
산비둘기 까치 참새 꾀사리 끼고  
탐조객과 황조롱이 구경꾼 된다

새 친구 사귀어 마실 다니고  
식당차 따라 군무하며  
지휘자 없는 떼창이라도

매년 새들의 잼버리가 열리는  
내 고향 순천이다

## 엄니의 옛이야기

이불 바깥 팔이 시린 밤  
머리까지 뒤집어쓰고  
까만 하늘 별 만져보고  
칠혹 땅굴 비행하다  
엄니 옛이야기 듣는다

낮에 순경은 주지마라  
밤엔 제석산 반란군 총뿌리  
살려고 보태준 이들  
무담시 목숨 빼앗기고  
눈물 나눠주고 간 사연

저기 보이는 여자섬에서도  
밥 주고 약수한 아저씨  
어디메로 끌려가  
육이오 이후 감감무소식

그 밤 아버지 방에 가두고  
어렵사리 다섯 번 10.19 오가고  
어찌다가 생겨나온 나  
옛이야기 듣고 들었다

신은 이유 알고 죽었지만  
임들은 당신 탓 아닌 억울  
누가 쓴 옛같은 소설인가  
남겨진 자의 무너진 역장은  
어찌어찌 쌓아도 역사에  
피눈물 묻어 흐르고

엄니의 묵언은  
역사는 미래가 아니다  
그 미래 좋은 세상 만들거라

\*무담시: 관희의 방언.

## 갈대밭 지나 여인을 만나다

들녘이 담 넘으며 인사하고  
먹이 남남하고 갈 때는  
호랑이 흉내 내는 아침나절

여자와 용이 기별해 와  
얼렁 대문 나서니  
그림자 뒤따른다

햇님 웃음꽃 펼치고  
요술 손 내밀어  
전망대 카페 큰 팔랑개비  
날개 짝 붙잡아  
겨울이 폭하다

누구는  
바닷물 물으로 쳐들어오니  
배 타고 마중 나가고  
나는  
갈대 사이 데크길 걸으며  
보고픈 님들 되새김질한다

출렁다리 건너  
비행 마친 솔잎 흩뿌려진  
기다란 오솔길 올라  
용 어깨에서 관람하니  
여인의 s자 곡선이  
신의 한 수다

베르사이유 정원보다 널따란  
자연 순수 보석밭이  
지금 내 것이라니  
아까 갈대군병 부동자세는  
내가 vip라서 그랬구나

혼자라서 너무 좋다가도  
혼자라서 외롭다  
색안경 벗고 눈 찡그리니  
그림자는 발걸음 수 세며 가고  
아바타는 눈총 가는 곳에  
익숙하게 포즈를 취한다

## 무진뚝 키다리풀

무진뚝 키다리풀 모꼬지 손짓한다  
늘솔길 아띠 같아 오달지게 다가가니  
흰머리 흘씨 나르고 담상담상 슬프다

- \*모꼬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 \*늘솔길: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
- \*아띠: 오랜 친구
- \*오달지다: 마음에 흡족하게 흐뭇하다
- \*담상담상: 드물고 성긴 모양



정 현 성

- \* 전남 순천 출생
- \* 공무원
- \* 전남백일장 입상
-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 <시우림> 동인
- \* E-mail\_hsung557@hanmail.net

## 또 다른 시작

조 수 연

겨울의 맑은 숨결 속에  
우리는 두 가정의 마음을 담아  
따뜻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계절이라 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의 손도  
차갑게 닿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지켜온 사랑이  
작은 난로처럼 우리 사이를 밝히니까요

서로 다른 길에서 오래 걸어온 시간들  
눈송이처럼 포근히 내려와  
한 상 위에 조심스레 포개지고  
미래라는 눈 부신 빛이 고요히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겨울 하늘에 소망을 띄우고  
이 만남이  
한 해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채우는  
가장 아름다운 인사가 되길 바랄 뿐입니다

겨울은 차갑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따뜻하여  
이 순간을  
영원히 빛나는 첫 걸음으로 기억 합니다

## 나비는 공항의 주인공

기약 없는 헤어짐 속에  
흔적 남을까 닦고 또 닦고  
여달는 문소리에 놀란  
종이 부스러기 잡으려고  
이리뛰고 저리뛰는  
가족의 꿈을 향한 주인공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이  
반겨야만 하는 영혼 없는 눈빛  
그들 역시 기약 없는 헤어짐 속에  
흔적 남을까 닦고 또 닦는구나  
부서진 인생의 상처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공

값진 땀방울 흐르는 여름 가고  
찬 바람 불어오면  
손 시리고 가슴 시릴까  
따뜻한 차 한잔 전하고 싶다

## 지선아

내 몸 가장 작은 곳에  
가장 깊은 사랑으로 박힌 너

새끼손가락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그저 존재만으로도 심장을 찌릿하게 만드는 아이

한번 다치면 긴 시간 멎들고  
닿기만 해도 울컥 아파지는 그 끝  
커다란 너의 눈동자에  
근심이 번질때면  
나는 숨도 조심스레 쉬어

혹시 내 근심에 너의 마음이 흔들릴까봐

세상은 아직  
너무 크고, 빠르고, 모질기에  
두손 모아 너를 감싸 안는다  
숨처럼, 기도처럼

다섯 손가락 멀쩡해도  
너 하나 아프면  
그날 하루가 기우는 것처럼  
너의 눈물 한 방울  
나를 젖게 한다

사랑이란  
무너지는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일

나의 작고 큰 전부  
내 아픈 새끼 손가락  
내가 살아 숨 쉬는 이유하나가  
오늘도 너에게 닿기를

## 시계는 말없는 동행자

맑은 아침의 첫 종소리  
시계는 조용히 나를 깨운다

흘러간 시간은 바늘 끝에 매달려  
추억의 그림자를 하나둘 쌓아 올리고  
낡은 숫자판 위엔  
웃음과 눈물이 겹겹이 새겨진다

시계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오늘의 순간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내일의 빈 자리로 흘러보낸다

끝없이 흐르는 그 둥근 걸음 속에서  
우린 어제의 나를 떠나  
새로운 날의 문턱에 선다

시계는 말 없는 동행자  
멈춤 없는 길잡이  
그 안에 담긴 세월은  
곧 내 삶의 맥박이 되어  
내일을 향해 또박또박 울린다

## 집으로 가는 길

저물녘,  
빛이 천천히 식어가면  
하루의 끝자락이 발 끝에 스민다  
바람은 이름 모를 사연을 실어 나르고  
나는 그 속에서 나를 조금씩 내려 놓는다

기다란 복도 끝은 오래된 기억처럼 굽이쳐  
발걸음을 다정하게 붙잡고  
어딘가에서 흘러나오는 저녁의 온기  
그 향기에 마음이 먼저 젖는다

도어 아이의 희미한 불빛 하나  
어둠 속에 꽃처럼 피어나면  
그곳이 나의 자리임을  
나는 조용히 알아본다

돌아간다는 것은  
잃어버린 나를 다시 부르는 일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나는 오늘의 나를 가만히 품는다

## 부치지 못한 편지

사랑하는 내 딸아  
이제는 한 가정의 달이 된 너를 생각하면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된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아도  
서로의 빛을 받아  
더 환하게 세상을 비춘단다  
너도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  
더 밝아질거야

초승달처럼 작게 시작해도  
날마다 차오르며  
마침내 둥근 보름달이 되듯  
너의 하루하루도  
조금씩 쌓여  
환한 기쁨이 될 거란다

때로는 구름이 가려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  
그래도 달은 사라지지 않아

잠시 쉬어갈뿐,  
다시 제자리에서 빛난단다

가정이라는 밤하늘 속에서  
너는 따뜻한 달빛이 되어  
웃음은 은은히 번지고,  
사랑은 잔잔히 흐르게 하렴.

멀리서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도  
언제나 너를 비추는 별빛처럼  
곁에 있을게.  
사랑하는 딸아  
오늘도 너의 하늘에  
희망이 둥글게 차 오르길..



조 수 연

- \* 복지원예사
- \* 들샘원예복지센터 봉사단 회장
- \* 민족문제연구소 동부지부 부회장
- \*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이사
- \* 순천여성문학회 회원
- \* 순천시여성단체총연합회 감사
- \* (전)새순천라이온스 회장
- \* 2022년 원예치료 프로그램 경연대회 입선

## 물속에서 잠들다

김정수

연보라색 나비 그늘에 앉아 쉬어가는 곳  
포도나무 위로  
구들장 이불을 덮어주었다  
올라오는 열기 셔츠 주머니에 매달고  
소나무는 검붉은 손을 다듬었다  
오 남매 상장을 벽에 붙이던 어머니  
누렇게 늙어버린 상장은 앨범 속에서 뼈죽 입을 내밀었다  
방문판매원 책을 파스랑 바꾼  
아카시아꽃을 좋아하던 남자  
생활통지표 학부모란 꼭꼭 눌러 써 내려간 글자 속  
숨 쉬고 있는 아버지  
유영하는 어버이날 보낸 내 편지

## 선캄브리아기 암석

5억 년 전 꿈틀거리는 손이 표면을 뚫고 올라왔어요  
손자국을 따라가다 머문 자리  
뉴스를 보고 알았어요  
돌나물 무리 지어 놀던 강 가장자리  
청송 세계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어요  
단층 속에서 숨바꼭질하는 바람 소리  
할머니 주름진 얼굴은 낡은 플라스틱 바가지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인동초 춤추며 기어오를 때  
촛촛한 기억의 사다리 건너  
다시 만나자는 약속  
물빛으로 답했다

## 메타시

안갯속을 헤매었다  
종이 위에 꿈지락거리는 양들을 찾아  
언 땅을 뚫고 올라오는  
빛이 보내는 소리들  
헤어지고 만나는 동안  
여행 떠난 손가락이  
살아나고  
움직인다

## 담배꽃

점 같은 검은 씨앗  
언덕배기 밭에 심었다  
끈적끈적한 담뱃잎을 따다  
어깨에 여름을 지고 날랐다  
건조장에 모여 줄지어 표를 받는 죄인들  
검고 진한 피  
지워지지 않는 파편  
하늘은 담배밭을 내려다본다  
분홍색 담배꽃이 피었다  
외롭고 고된 삶  
평생 담배 한 개비 피운 적 없는  
당신의 꽃

## 바다의 노래

발가락이 시린 날 익금으로 갔다

실핏줄 썩여있는 흔적이 일렁이고  
숨 쉬는 모래 속에 늦잠 자는 돌맹이  
불을 꼬집는 빨간 바람  
갯바위 웅덩이에 세 들어 사는 성계 가족  
월세는 후불제

헤아릴 수 없는 대지  
새벽녘 가벼운 몸을 신고  
김발에 올라오는 건 나이 든 남자의 연금  
시퍼렇게 물든 손가락 위로  
마중 나온 윤슬

## 산

산불이 날아다녔다

상복喪服 입은 산  
미동도 없이  
깊은 잠을 잤다  
곱게 겹쳐진 능선 위로 비가 내렸다

움푹 팬 상처들  
몰래 숨기고 살았다

미안하다는 문장 하나  
남기고 떠난  
그 마음은 평온했을까?



김 정 수

\* 경북 청송 출생  
\* 문학동우회 <시우림> 회원  
\* E-mail\_zion3484@naver.com

## 열 많은 밤

윤 석 미

열이 난단다  
어린이집 가방은  
오늘도 문 곁에 서 있고

하은이는  
콜록, 콜록  
여린 숨을 혼든다

크느라 그런 거라지만  
할미 마음은  
자꾸만 쓰다듬을 곳을 찾는다

그래도 나는 안다

이 작은 몸에도  
봄은 오고  
숨은 단단해진다는 걸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오늘도  
뜨거운 이마 위에  
가만히 손을 얹는다.

## 보름달이 뜨면

마당까지 닿은 달빛이  
괜히 오래 머문다

찰밥 생각이 난다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접어도  
입안 어딘가에  
그 고소한 냄새가 남아 있다

어릴 적 정월 보름이면  
부럼을 깨물고  
마당에서 피마자나무를 태웠다

“너 나이만큼 넘어라.”

나는 이유도 모른 채  
가볍게 불을 넘었고  
엄마는 말없이  
불을 더 모아 태우셨다

지금 와 생각하면  
그 불길은

딸의 한 해를 지켜달라는  
조용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오늘 밤  
나는 아무 불도 넘지 않고  
그저 달만 바라본다.

문득  
마당 끝에 서 있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오른다.

달빛 아래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나는 오래  
그 밤을 생각한다.

## 거울

나는 오래도록  
나를 믿지 못했다

그저  
버텨온 시간으로  
나를 증명하던 사람

너는 나와 다름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끝내 문을 여는 너를 보았다

그 순간  
달혀 있던 내가  
함께 열렸다

끈질김과  
숨겨온 여림까지

너는  
나를 닮아 있었다

나는 이제야  
너를 지나  
나에게 도착한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나를 바라본다

## 내 안의 바다

엄마는 말했다  
바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린다고

바다 앞에 서면  
수평선이  
먼 마음을 연다

파도는 부서지고  
다시 일어나  
끝내 돌아가고

바람은  
내 안에 오래 머물던  
생각들을 흔든다

나는  
가끔 바닷가에 앉아  
밀려왔다  
다시 흘러가는 물결처럼

바다의 깊이를  
가만히 들여다본다

먼데서 걸어온  
잔잔한 물결 하나  
내 마음의 깊이를 잰다

들려왔다 사라지는  
엄마 목소리 가뭇하다

## 벽돌

나는  
무너지지 못한 채  
멈추지도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

버틴 것이 아니라  
무너질 용기가 없어  
버텨온 것이다

지금도  
괜찮은 척을 하며  
작은 균열에도  
조용히 흔들린다

무너질까 봐  
들킬까 봐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무너지지 않으려

이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친다

무너지지 못한 것도  
멈추지 못한 것도 아니라  
아직  
버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슬하게  
나를 붙든다

## 꽃비의 밤

꽃잎이 내린다  
말없이, 아주 천천히

찬란하던 시절  
학생들과 함께 걷던 밤  
벚꽃 아래  
기타 선율이 잔잔히 흐르고  
어둠은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안았다

공원 한켠  
웃음과 노래가 머물던 자리  
그 밤은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도록 빛나고 있었다

해마다 꽃이 피고  
꽃비가 내리면  
잊었다 믿었던 시간 들이  
다시 나를 적신다

가만히 내려앉은 기억들 사이로  
그날의 우리가 스며들고  
나는 그저 서서  
흘날리는 시간을 바라본다

새삼 떠오른 그 밤의 꽃비는  
서럽도록 아름다워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고 지나간다



윤 석 미

\* 전남 장흥 출생  
\* 경영학 박사  
\* 순천여성문학회 회장 역임  
\* 문학동우회 <시우림> 회원  
\* (유)코리아온미래교육원 대표  
\* (주)책과사람 대표  
\* E-mai\_ysm8285@nate.com

## 모과

최학은

돌담 안 동백 수다 떠는 새들 사이로  
설레발 모과 한 알

굽은 주름에 검버섯까지  
저 모과 참 모개같이 생겼네  
생각 없는 생각 눈길 한 번 스친다

담쟁이 넝쿨 타고 툭, 떨어진  
해맑은 병아리처럼

나 어때 하며 내미는  
가슴 철렁 셋노란 향기

단단한 몸에 스민  
햇살의 따스함인가

시고 뚝은 시간이 기억하는  
꽃의 이야기인가

이마의 상처에 흐르는  
씨앗의 간절함일까

스치는 바람의 말에 허물어져도  
손 내밀어 물드는 향기

밑바닥 마른 웅덩이 시큰한 늦가을

## 서먹한 사이

탐매마을 북문길  
매화가 서먹한 골목

지붕 낮은 집 매화꽃 무늬 문패,  
나무 문패

손잡고 걸어온 한쪽이 사라졌다  
굵힌 상처에 이름 석 자 희미하다

미처 지우지 못한 손길과  
무거운 발걸음  
사이

아무렴,  
홍매화 꽃피우는 저녁 있었제

문패에 간혀 시든 꽃 내음  
강아지풀이 담장에 올라 수컷처럼  
코를 킁킁거리는

## 금이 간 집

트럭에 실린 이천 도자기 몇 점

허름한 인력소 간판처럼  
꽂지머리 더부룩하게 집 떠나 왔다

담보물인 양 향아리 둘, 하나는  
실금이 가 있다

흙과 불 어르던 손아귀에  
삽자루 지문 박히고  
홀쩍이던 장사익의 찢레꽃은 시들고

맨바닥에 널브러진 소주병으로 미처  
태우지 못한 불길이 쌓인다

향아리 속 텅 빈 허기와  
밋밋하게 익숙한 얼굴

그 어디쯤  
뜨거운 바람이 지나온 실금 사이로  
애쓰지 않아도 허물어지기 위해

빗물이 스미고 있다

용수골 축축한 단칸방  
단정히 내려앉아  
언제까지 말이 없다

허기진 속마져 지우고 낯설게 돌아온  
집 프락  
국화꽃 말고 하얀 찔레꽃 향기 어때

## 어느 봄날의 노래

비 지난 뒤

동천 벚꽃 길  
흰 나비 같은 벚꽃잎 하나

눈 맞추던  
길가 민들레꽃 덮친다

노란 향기  
온몸 떨며 안간힘 쓴다

고개를 가웃거리는 민들레

비와 바람이 시름없이  
흔들고 간

누군가의  
간절함이었을  
더없는 몸짓

꽃의 노래다

어느 봄날이다

## 어찌다

엄마 생일 맞아 제주 가족 여행  
여수공항 차에서 내리던 아들이

엄마 손이 왜...

검붉게 부풀어 갈라진 꽃등  
돌아서서 괜한 손녀 등 쓰다듬은 척

어찌다,

겨울에 찬물 설거지해 그렇다니  
아들은 우두커니 하늘만 쳐다보네

가을 하늘 시름없어  
빨쭙한 흰 구름만 멀뚱멀뚱

애들 보게 되어 좋았다며  
여행 내내 끼고 다녔다는 목장갑 들고

지금이 마땅하다 웃는  
식탁 셋 단골식당 주인 여행담

반주 한 잔에 불과한 저녁 하늘

## 매미에게 배우다

멤멤 멤돌다 발라당 뒤집혔어  
온몸으로 바짝 얹드릴 셈이었는데

마른 하늘에 웬 주먹질 발길질  
한바탕 뒤엎는 줄 알겠네

무에 그리 맵고 떨어트려  
땅속 일곱 해  
햇빛 스무날 남짓

시방  
은행나무 꽃잠 막 꿈속인데

저 먼 곳 그냥 가라 하시면  
남은 가을도 휘청이겠네

색깔도 냄새도 없는  
피약벌에 맞서  
시퍼런 제 소리 태우니

## 그 시간 이후

소신공양 분신자살 어려운 뜻  
이제 배운다네

동화는 늘 이렇게 끝난다  
둘이 그 이후 행복하게 잘 살았다

우리의 삶은  
그 다음 문장부터 흔들린다  
둘 사이의 계절은 하나로 섞이지 않았다

어느 날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말이  
깊은 침묵을 가져왔다

다행히 시간은 한 번 더 머물렀고  
이젠 자주 넘어지고  
자주 멈춘다

여전히 다르고  
여전히 서툴지만  
같아지는 일이 아니라



\*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공무원, 회사원, 일용노동  
\* (현) 자영업  
\* E-mail\_hyc5126@naver.com

최 학 윤

끝내 다른 채로  
곁에 남아주는 일이라는 것을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동화의 그 시간이후 결말은 어디일까

## 매화

겨울 끝자락을 지나면서도  
모른 채 살아간다  
겨우내 접어 두었던 마음을 펴  
봄을 맞는다

떠났던 것들은 돌아오고  
돌아오지 않는 것들은  
그리운 이름으로 온다

나뭇가지마다 맺힌 침묵이  
형형색색의 언어로 풀리기 시작하면  
지난 계절의 한숨도  
조용히 제 무게를 내려놓는다

무심히 스친 바람 한 자락이  
얼굴을 어루만지는 순간  
봄은 '깨달음'으로 다가온다

해마다 오는 너이지만  
마음이 열리는 순간에야  
새 봄으로 다가온다

굳이 불러내지 않아도  
가슴 어딘가에 저장된 온기처럼  
봄은 이미 내 안에  
재생되고 있었다

바쁜 속에서  
크게 소리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쉽 없이

그러던 어느 날  
빛이 달라지고  
바람이 부드러워지고  
꽃이 먼저 말을 건넨다  
아, 이미 봄이구나

## 발효醱酵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말해야만 하는 고통을 앞지를 때가 있다

문장사이에 웅크려 앉아  
망설이고 주저할 때  
직선으로 뻗는 문장은 명쾌하나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가 없고

애둘러 가는 비문(非文)은 구비마다  
숨겨진 진심과 여백이 있다  
망가진 슬픔은 소리내어 읽기보다  
눈으로 천천히 만져야 하는 것

언어의 그늘아래서  
당신의 호흡은 장르가 되고  
그 서툰 노래는 한권의 생이 된다

지금 당장 너마가 된 줄글들이  
나의 허기를 채우지 못할 지라도  
단절과 연결 사이, 그 좁고 어두운 틈에 간혀  
이름모를 온기를 익히는 중이다

오래 아픈 시간을 지날 때면  
누군가는 썩어 냄새가 되고  
누군가는 발효되어  
더 깊은 시어(詩語)가 된다

오래 젖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시름하고도 달큰한 기다림  
마음이 짓무르도록  
속으로 느낌을 읽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문장의 향기는 익어갈 것이다  
마침내 한 점에 이를 때까지

## 빈 집

친구의 기타연주 첫 곡은 항상 섬집아기였다  
기타 선율에 얽히는 아스라한 파도 소리  
환갑이 된 친구는  
오늘도 고등학교 교실의 그날처럼  
지그시 눈을 감고 ‘섬집아기’를 연주한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파러 가면”  
그 서늘한 첫 소절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굴 파러 간 엄마는 돌아오지 않고  
파도 소리만 담장을 기웃대던  
그 시절, 우리들의 빈집을

도시의 삭막한 일터로, 시장바닥으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고단한 뒷모습들  
그림자가 길어질 때까지  
텅빈 방 안에서  
동생의 젖비린내를 맡으며 잠들던  
당시 우리는 모두 혼자 남겨진 아기였다  
세월은 어느덧 초로에 접어들었으나  
친구의 손끝에서 되살아난 선율은  
그 아기를 흔들어 깨운다

배고픔보다 무거웠던 기다림과  
문틈으로 새어들던 노을의 적막  
연주가 깊어질수록  
우리 가슴 속 방안으로  
그토록 기다리던  
엄마의 발소리가  
천천히 걸어들어오고 있다

## 순천왜성의 벚꽃

돌은 자꾸만 말을 걸어온다  
누가 이 성을 쌓았는지  
돌을 나르고, 또 나르던 손들  
조용히 끌려와 돌이 된 사람들

그 고된 피땀이  
돌 틈마다 굳어  
봄 햇빛 아래 식지 않는다

그럼에도  
해마다  
벚꽃은 피었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연분홍 꽃잎은  
잠깐 켜졌다 꺼지는 불빛 같아서  
눈부실수록 더 빨리 사라지고  
바람 한 번이면  
허망하게 흩어진다

결국  
모든 것은 스쳐가는 것뿐인데  
그 잠깐의 빛으로  
우리는 또 오늘을 견디고 있다

## 오동도 동백

땅끝 막다른 길  
더 갈 곳 없는 절벽 끝에서  
사랑도 마침표를 찍고  
바다로 흩어졌다

그날, 파도에 실려보낸  
눈물마저 얼어버리고

겨울을 지나야 봄이 온다지만  
아직 대한의 모진 칼바람이  
지나가는 차가운 동천  
시린 계절의 복판을  
붉게 물들이는  
울음처럼  
다시 동백은 피어나고  
툭, 떨어져  
길위에서 한 번 더 붉다

죽어야 피어나는  
이 지독한 그리움이  
터져나온 울음처럼

오동도 숲길위로  
툭, 툭, 떨어진다

# 수필

이영옥



하 정 인

- \* 여수공항의 책임자로, 사람과 지역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다.
- \* 일상을 다른 시선으로, 말과 풍경 사이에 머무는 마음을 시로 배우고 있다.
- \* 아직 시를 쓰는 사람이라기보다, 세상과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고자 한다.
- \* E-mail\_uni@airport.co.kr

## 기억의 습지, 별교에서

### 이영옥

저마다 아픈 하나쯤 가슴에 품고 산다. 기억의 포자는 몸 안에서 버섯처럼 뿌리 내린다. 상처는 자연히 아물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에게는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금기이다. 오월의 별교 중도방죽엔 누렇게 색이 바랜 갈대가 군집을 이뤘다. 바람이 갈대 머리를 쓰다듬는다. 갈대는 마른 몸으로 덥수룩한 머리를 흔든다. 눌러둔 기억이 바람에 끌려 일어난다. 생을 마감하고도 허리를 곧추세운 갈대는 별교 천에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중도가 별교 원주민을 동원해 간척지를 늘일 욕심으로 방죽을 쌓았다. 노역으로 희생된 이들 흔적이 갈대 뿌리에 고였다.

빛바랜 갈대 밑동으로 파릇하게 새 갈대가 돋았다. 소멸과 생명의 교차점에서 자연은 끊임없이 순환고리를 엮어낸다. 어린 갈대는 솟대처럼 솟구치려는 중이다. 가슴을 내밀고 손을 뻗어 허기진 아이처럼 햇볕을 마시고 있다. 요 며칠 비가 잦아 흐린 날이 많았다. 쏟아지는 햇볕이 나도 반가웠다.

오월의 끝에 나는 별교를 찾았다. 세 개 단체가 모여 ‘소설 태백산맥 문학기행단’에 진행을 의뢰해 성사된 행사였다. 마을 초

입 소설 속 등장인물인 소화의 집이 보였다. 집 마당에서 잔잔하게 파도치듯 ‘부용산’ 노래가 흘러나왔다.

보성여관 김성춘 관장의 재능기부로 불리고 있었다. 쪽 찢 머리에 남색 저고리 밑으로 하얀 치마가 목련처럼 부풀었다. 관장은 한복차림을 하고 ‘부용산’ 노래로 기행단을 환대했다. 한때 금지곡이던 ‘부용산’은 울가미를 풀고 별교 천을 떠다녔다. 노래는 바람이 되어 별교 습지를 어루만졌다. 나는 별교 별판에 서서 지난 세기의 상흔과 마주했다.

아픔은 소설로 재현되어 과거를 기억한다. 조정래 소설 ‘태백산맥’ 속 가상 공간은 마을 곳곳에 건축되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보존되고 있었다.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서로 부둥켜안고 만세를 불렀으나 환희의 함성은 잠시, 불안정한 한반도 정세에 미 군정이 간섭하면서부터 혼란이 시작되었다.

역사는 좌우로 나뉘어 극한 대비를 이루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벌어진 보도연맹은 순진무구한 사람을 좌익의 누명을 씌워 학살한 사건이다. 운동장에 줄지어 세워놓고 서로 손가락 총을 쏘게 한 우익들의 잔인무도한 사건이 별교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어졌다.

소설은 현실을 토대로 쓰였다. 쫓고 쫓기는 이들의 증오 속에도 소설은 아픈 사랑 하나를 피워 올린다. 나는 오래전 ‘태백산맥’ 방대한 서사를 숨차게 완독한 적이 있다. 읽은 지 오래되어 소설 속 그림이 희미했다. 이번 기행을 계기로 나는 다시 ‘태백산맥’을 읽고 싶어졌다.

동행한 이금희 씨와 초면이지만 난 금세 친해졌다. 기행의 동선마다 함께 보폭을 맞추며 걸었다. 현부자 집 마당 가운데 일본식 화단이 놓였다. 큰 바윗돌로 원의 가장자리를 에워싸고 안으로 키 낮은 정원수가 둥글게 손질되어 단정했다.

내가 일본식 정원에 눈을 파는 사이, 마당 안쪽 담장 아래로 보라색 달개비가 이금희 씨를 붙들고 있다. 둘은 우연히 만난 친구처럼 보였다. 서로가 가진 색을 나누며 안부를 묻는 듯했다. 난 그런 그들을 보며 다시 한갓지게 현부자 집 가진 자의 여유를 탐닉했다.

이금희 씨가 보라색 달개비를 응시한 이유를 내게 말했다. 취미로 수묵화를 그리는데 소재로 삼기 위해서라 했다. 핸드폰을 열어 직접 그린 수묵화 사진 몇 점을 내게 보여 주었다. 키 낮은 꽃들이 화선지 위에서 수묵으로 피어올랐다. 현세의 꽃은 나고 지기를 반복하지만, 붓끝에서 피어난 꽃은 절정으로 피어있을 뿐이다. 채색된 먹의 농담이 다소곳한 이금희 씨와 닮았다.

달개비 같은 고움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 이금희 씨는 직장을 정년으로 퇴임하고 순천으로 이사 왔다. 이금희 씨에게도 아픈 그림자 하나 가슴에 있다. 함부로 꺼내지 못하는 그을린 그림자 하나 품고 산다고 했다. 대화 중에 언뜻 수묵의 붉은 색감이 이금희 씨 눈두덩이 위로 번지는 걸 나는 보았다. 그 속의 그림자가 궁금했다. 난 묻지 못했다. 그건 스스로 꺼낼 때만 비로소 치유된다.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 같은 그림자가 언젠가 거둬지기를 나는 속으로 바랐다.

꽃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피치 않는다. 품은 결대로 저마다 다른 빛을 드러낼 뿐이다. 보라색으로 발현한 달개비는 무슨 형질을 품고 있길래 저리 고운 빛깔일까.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으면 그늘 색이 열어질까. 수묵화처럼 투명해질까. 아이러니하게도 아픔은 이처럼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한다.

역사적 아픔에 연민을 느껴 별교가 좋았던 건 아니다. 아파트에 갇혀 사는 나는 별교 들판에 쏟아지는 햇살이 좋았다. 숨 막히는 일상에 지쳐 여기라면 웬지 느리게 살아도 될 것 같았다. 별교에 집을 알아봤으나 현실은 허구처럼 내 발목을 잡았다.

문학기행 동선을 따라 바라보게 된 별교는 허구와 실화가 어우러져 있었다. 별교는 흐르지 못한 자신의 그림자를 득량만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한다. 그것은 내 속에 가둔 금기어 하나 꺼내어 산화시키는 일과 같을 것이다.

기억의 습지엔 빛바랜 갈대가 군집을 이룬다. 그곳에도 비가 그치고 별이 들이치기를. 저마다 날개 꺾인 꿈들이 다시 날아오르기를.

## 시절인연

한 목사님이 남아공 선교 기간에 지은 시를 내게 보여 주었다. 보라색 꽃이 만개한 풍경을 보고 쓴 시였다. 시를 읽고 보라색 꽃의 이름이 자카란다 인걸 나는 처음 알았다. 시에는 허공에 무리 지은 꽃이 하늘을 물들인다고 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카란다가 나는 상상해 보았다.

서리가 내리지 않는 아열대 지방에서 자생하는 자카란다는 내게 향수처럼 스며들었다. 낯선 이름의 자카란다는 한국의 뽕나무처럼 대게 가로수로 쓰인다. 꽃차례는 아카시아를 닮았다. 늦봄에 보라색 꽃을 피우는 자카란다는 어떤 향을 지닐까. 영상을 찾아 보며 난 향기를 떠올렸다.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나는 눈으로 꽃의 향기를 맡았다. 가지 끝에 매달린 꽃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금세라도 향이 번질 것만 같다.

무미한 일상에 우박 하나가 내 앞에 떨어져 파동을 일으켰다. 내게 자카란다가 그랬다. 분홍이나 붉음이 아니다. 빨강과 파랑의 중간쯤, 혼함과 드뭇 사이 어디쯤에서 나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보라색의 아름드리나무를, 나아가 도심 전체를 물들이는 광경을 목격한다면 형언만으로 감당하겠는가. 그건 물감으로 부린 마법이였다.

가로수마다 벚꽃이 피면 하늘에는 여백이 사라진다. 일 년에

한 번 마법 같은 현상에 사람들은 술렁인다. 꽃은 전염성이 있어 사람 얼굴에 번진다. 꽃이 된 사람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누빈다. 지구 반대편 사람들도 자카란다 나무 아래에서 꽃이 되어 시를 짓는다. 꽃은 해와 바람과 물의 조력으로 만들어 내는 나무의 얼굴이다. 나비는 꽃에서 먹이를 찾고 사람은 상처 난 마음을 안고 꽃을 찾는다.

멘델스존의 오페라 ‘한여름 밤의 꿈’에서 요정이 뿌린 꽃 즙은 엇갈린 사랑을 이어주는 매개가 된다. 꿈이라면 깨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 이루지 못한 사랑도 꿈이라면 가능하다. 현실에서도 꽃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인다. 바람이 꽃의 흔적을 지우면 들뜬 사람들은 고요해진다. 꽃이 지면 마법도 사라질까.

꽃을 보며 설레는 건 색이 주는 힘 때문이다. 색은 사람의 내면을 정화시킨다. 망막을 스쳐 뇌리에 닿기까지 빛의 거리는 찰나에 불과하다. 찰나의 파장은 심장을 파고들어 둔한 감정을 흔들어 깨운다.

나는 색을 찾아 라벤더 축제에 간 적 있다. 사람들은 카메라를 들고 라벤더밭 사이에서 찰각거렸다. 지면의 곡선을 타고 바람이 달리면 보라색 꽃들도 파문을 일으켰다. 무명천에 물이 배듯 내 살갓에도 꽃물이 들었다. 감각이 살아나는 잔잔한 진동이었다. 라벤더는 무릎 아래 색을 펼치고 자카란다는 하늘에 색을 친다.

사는 동안 계절의 변화는 내 관심사에서 멀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은 동선을 방해하는 장애물이었다. 봄에는 꽃가루와 전쟁을 치러야 했다. 겨울은 지루하고 봄은 시끄러웠다. 자카란다 보

라색 향에 취한 후로 나는 계절에 반응하기 시작했다.

겨울의 무채색도 좋았다. 동선의 장애로만 여긴 눈이 백색소음을 지우며 내렸다. 도미노처럼 꽃을 피워 올리는 봄을 기다렸다. 시선 위로 무리 지은 산수유가 나를 흔들었다. 한껏 부푼 모란 옆을 괜스레 서성거렸다. 상사화 붉은 연정에 가슴이 저렸다. 계절은 시절 인연처럼 내게로 왔다.

어느 날이었다. 차를 운전해 가다가 도로변 산비탈에 보라색 꽃을 매단 나무가 보였다. 나는 운전석 창문을 내렸다. 뒷걸음질 치는 산비탈을 눈으로 붙잡으며 꽃의 생김새를 살폈다. 키 큰 나무에 핀 보라색 꽃이 자카란다와 비슷했다. 순간 주변의 혼한 것들로부터 무감각하게 살아온 나를 자각했다.

수소문 끝에 오동나무 꽃이란 걸 알았다. 식물도감을 찾아보았다. 자카란다와 오동나무는 전혀 다른 과에 속했다. 이름도 다르고 자생지역도 달랐다. 나이트에 새겨진 유전자도 다를 것이다. 같은 듯 다른 두 개를 내 시선이 하나로 묶고 있었다.

내게 꽃 이름을 알려준 이는 대수롭지 않아 했다. 벚꽃에 열광하는 이들이 오동나무 꽃에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김춘수의 시 '꽃'에서처럼 오동나무 꽃이 내게로 왔다. 길에서 그 꽃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시선을 놓지 못했다. 한 달이 넘도록 오동나무 꽃을 가지 끝에서 바람을 견뎠다. 꽃은 떨어지지 못하고 가지 끝에서 색이 바래 갔다. 꽃이 시드는 과정에도 나는 마음이 쓰였다.

햇볕에 사위어가는 오동나무 꽃을 보니 딸아이를 태운 버스가 생각났다. 올해 초 새 학기가 시작될 무렵이었다. 서울에서 유학

하는 딸아이를 고속버스에 태워 보내고 나는 터미널을 빠져나왔다. 내가 서 있는 건널목 빨강 신호등 앞에 딸아이를 태운 버스가 멈췄다. 떠나는 이의 꿈을 신고 숨 고르기를 하듯. 신호가 바뀌고 버스가 움직였다. 시야에서 딸을 태운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나는 걸음을 떼지 못했다.

꿈의 냄새를 기억하려 안간힘 쓰며 매달린 꽃은 알을 깨고 나가는 딸의 모습으로 옮겨갔다. 꽃도 유전자에 새겨진 소임을 끝내고 떠나는 버스처럼 잊힐까. 누군가의 책갈피 속에 꽃혀 간직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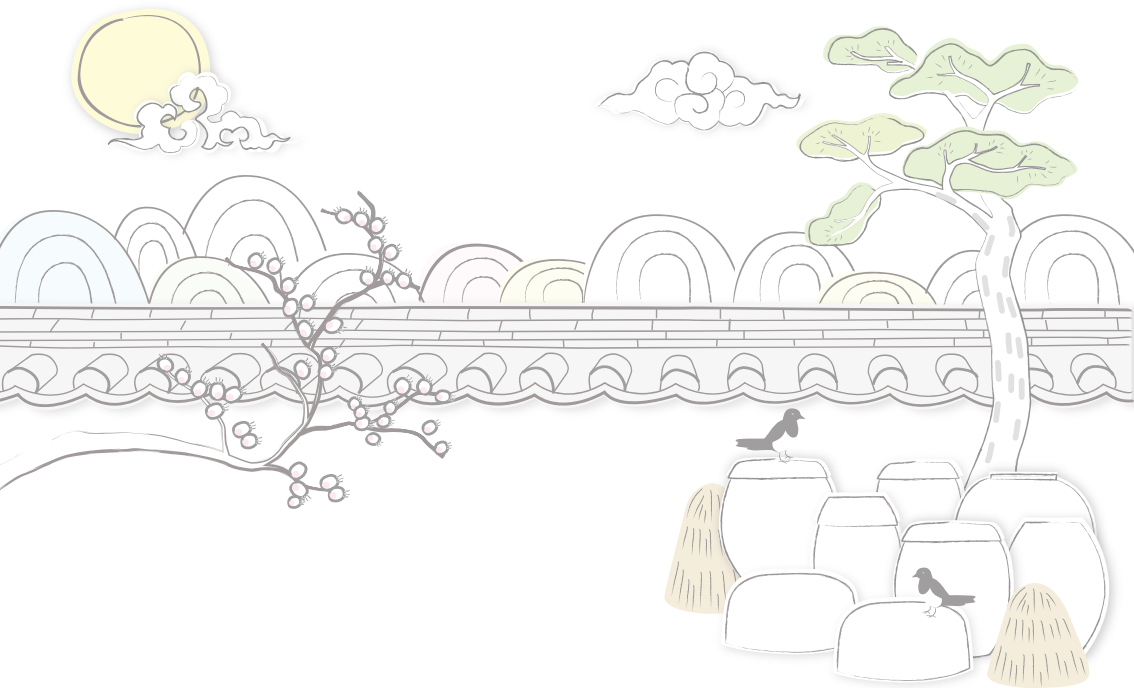
군중 속에서 고독은 나를 길들였다. 무리에서 떨어진 오동나무처럼 홀로 서 있던 때가 있었다. 색맹의 시간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격리했다. 갇힌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다. 나를 가둔 것은 정작 나였음을 자카란다가 알고부터 깨달았다. 수정체를 가리던 안개가 걷혔다. 마음을 여니 바람이 내 몸 구석을 훑고 지나간다.

자카란다는 하늘을 물들이고 오동나무는 땅끝에서 견딘다. 나는 무리 지어 찬란하고 다른 하나는 홀로 조용히 견딘다. 계절도 사랑도 내 안에서 보랏빛 자국을 남긴다. 지는 꽃은 잊히는 게 아니라 몸속 어딘가에 저장되는 것이리라.



이 영 옥

\* (시우림) 사무국장  
\* 전남 백일장 산문부 차상



# 시향작반 특집

문정서  
이축  
김진철  
차복순  
윤기옥  
정미현  
김영화  
김미영



## 거미집 단상斷想

### 문정서

소리 없이 지어진 아지트  
자랑스럽게 펼쳐진  
장방형 건축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인다

부는 바람에  
줄 하나 끊어질까  
그네에 몸을 맡긴 거미  
기척이 없다

모래성을 쌓듯  
지었다 부수기를 반복하는 나  
철옹성을 건드려본다  
손가락 하나에 사라지는 신기루

은밀한 시간에  
더 끈적한 집을 짓는 너  
나는 나무를 심는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잎새 하나 피우지 못하여  
발걸음 서성이는데

밤이슬에 새잎 피어나는 꿈을 꾸다

## 크리스마스روز

갑자기 찾아온 추위에  
늦어진 소식  
활짝 웃을  
새 아침을 기다리는 꽃

나목 들 찬바람  
속절없이 맞는 겨울

울타리 사이 낱작 엮드려  
하루 한 번  
지는 해에 언 몸을 녹이며  
푸른 잎 검게 지키다

사순절  
가시면류관 핏방울 맺히듯  
꽃잎 다섯 장  
오므린 채  
보일락 말락 건네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 플랫폼

소음과 혼돈을 지나  
숫자 또는 기호로 찾는다

잠시 머무르는 동안  
서로 다른 언어  
나직이 들려오고

유리 벽 너머 창공  
흰 구름마저 멈춘 듯  
더디게 가는 시간

빈자리 길게 누워도  
무언으로 허용되는 일탈  
안착하고 싶으나  
떠나야 하는

포근함과 설래임이 배어  
검정 혹은 백으로  
활주로에 들어서는 동체를 맞는  
저마다의 기델 언덕

## 나를 보다

### I

절뚝거리며 거울이 걸어온다  
마주치지 않으려  
엄지발가락에 힘을 준다

내 걸을 스치며 지나가는 얼굴  
이마를 찌푸리며  
볼이 부어 일그러진

만나지 않으려 다짐하면  
여지없이 꺾이어  
무한대로 펼쳐있는 나

### II

코트 자락을 끌고 현관에 들어선다  
정면에 보이는 낮선 얼굴  
몸을 틀어 옆모습을 훑쳐본다

망각의 늪으로 들어가야 해  
이불을 뒤집어써도  
그림자들이 짓누른다

브람스 세레나데 볼륨을 높이고...

꿈속에서 흥정을 한다  
내일은 안 올거지  
허우적대며 늪을 빠져나오는 다리  
베게를 적시는 땀이 흥건하다



문 정 서

\* 전남 순천 출생  
\* 시집 「야생의 여름을 주세요」  
\* 2025년 전남문화재단 창작지원금 수혜  
\* 전남백일장 장원  
\* 전남문인협회 회원  
\*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시창작반 동인  
\* 정신보건전문요원  
\* E-mai\_ja4u@naver.com



## 알람 소리로 터진 봄 單子

김진철

땅 뚫고 하늘 봤으니 봄이구나

너는

보랏빛 귀로 만지며 말 건넨다.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알려줄까.

그 시각을

나는

귓불 잡은 손으로 비릿한 살냄새 맡고

때 되면 발 뺀어

출구 좀 찾으라 답한다.

온몸

힘주어 사주팔자 던져보니 혼자가 아니네요.

바스락

앞땀 터지는 알람

소리

늘어진 기지개로 답한다.

봄이 본

봄과

봄으로

아!

봄은

四柱單子

노루귀가 받는다. 오방색 옆구리로 치닫는 설렘까지

## 가고 싶음에서 찾아낸 그것 ~ 새의 심장

그 끝

해진 실오리가 미쳐 춤추기 시작하면  
시간 끝맺음은 말로 달아나  
詩 끝에서 글썽임으로 맺는다.

나나와

마르탱의 조개껍데기를 더 이상 작은 해로 부를 수 없으면  
그 너머로 노랫말 찾아  
해 찾아  
나서자  
시인의 방법으로

다가온 실뭉치 끝, 그 실오릴 찾아 숲과 바다. 도시를 품은 소녀  
가 묻고

시인 나나가

아름다운 숲, 항해할 배, 빵의 사랑을 만져  
한곳으로 날린 이름  
'새의 심장' 시인이 지은 이름으로  
그 별에 보내면  
별똥별이란 하얀색 날개를 붙여 詩로 돌아온다.

아하. 이러니 시인은 새가 될밖에

나의 말

詩로 날 수 없다면 심장 무게마저 버리고 날갯짓만이라도 하자  
먹색의 느린 골목으로  
흰색의 빠른 네온사인으로  
아니, 그 둘을 품지 못한 회색 벽체에 부딪히면  
맥박 멈춤이 찾아낸 숨소리, 말  
詩로 잉태되지 않은  
세상 끝  
불임 시인으론 갈 수 없어

使者로만 품는다.

요즘 그림책 읽기에 흠뻑 빠져있다.\* 생략된 글로 또는 글 없  
는 그림만으로 더 잘 읽히고 더 이해가 잘되는 감동까지 두 배  
세 배로 줄 수 있다는 매력. 그림책 만들기에 도전하는 이유이기  
도 하다.

스페인 출신의 마르 베네가스의 그림책 '새의 심장'은

주인공 나나와 마르탱이 그물, 배, 불가사리, 조개껍데기, 조  
약돌과 물살에서 바다의 언어를 배우고, 여행지 숲에 있는 나무  
와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에게 사랑을 묻고, 도시의 짙은 어둠과

\*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무루 지음, 일상과 그림책을 매치한  
에세이.

오색의 네온사인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나나가 자문한다.

‘숲은 충분히 아름다울까? 우리는 바다로 돌아가게 될까? 함께 시간을 향해할 배를 만들게 될까? 그의 빵이 나를 평온하게 하는 것일까? 그의 사랑이 나를 떨리게 하는 것일까?’ 소녀와 소년은 답을 알지 못하지만, 로는 답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나가 썼고 그 시집의 제목을 ‘새의 심장’이라고 하였다는 줄거리다.

詩와 시인은 세상 모든 일에 답할 수 있나?

시인은 꽃과 햇볕과 구름과 바람과 향기를 함께 본다. 사물과 자연현상에서 시인의 말, 시어를 찾아내는 것이다. 시인 아닌 사람들이 우연한 행운으로 한마디 단어를 찾았다 해도 희로애락이란 생명을 붙여넣을 수 있기란 쉽지 않다. 더더욱 그 단어에 인간 본래 성격과 감성을 일체화하거나 분리하고 이미지화 능력까지를 생각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러기에 시인이 마냥 부러울 뿐이고 詩人은 세상일에 모든 답을 줄 수 있다고 상상해 본다.

‘헤엄치던 물고기 비늘에서 날개가 돌아나 하늘에 닿아 있는 우듬지까지 나른다.’

어린 눈 맑은 눈, 순수를 잃은 지 오래다. 세상에 닳아져 그들의 언어를 받아들이고 그 언어에 익숙해졌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틀에 박힌 감정 없는 말과 그림만을 떠올린다. 순수한 느낌 그대로 말하지 못하고 종이와 연필만 소모하는 감성을 가지게

된 것은 더 높은 곳과 더 좋은 곳 더 많은 것으로 향하는 마음 씀씀이 결과물은 아닌지.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를 읽는다. 손자들에게 태동한 호기심을 꺼트리지 않고 맘껏 부풀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른의 방식이 아닌 어린 눈으로 만물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아이들 언어로 말할 수 있는 뒷배, 호기심 덩어리 할아버지가 되어볼까!



김진철

\* 세상 존재하는 책을 나만의 편식과 방식으로 읽어내고 나만의 감성으로만 쓰는 것  
\* 나무 만지는 것  
\* 꽃 피어지면 멍으로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막걸리꾼.

## 낮선 그녀

차복순

창문 넘어 초록이 문을 열까  
남계천 사철나무  
양상한 가지 사이로  
뉘엿 뉘엿 저무는 하루를  
시리도록 바라보는  
낮선 그녀

날마다 일출을  
주렁 주렁 새끼줄에 엮어 겹겹이 울타리를 쌓아  
투명 감옥 영토에서  
까만 알몸 태워가며  
칠십고개 넘어가네

알맹이는 어디에  
어둠에 가려진 공간  
돋보기 벗 삼아 자리매김 책장 넘기며  
낙우송 그늘 밑  
별이 되고 싶었던  
젊은 날을 구걸하는 쪽정이

식어버린 가슴 위로

힌머리 한다발  
치렁 치렁 허물 휘어 감고  
서울 여행 탑승하던 날  
"고도를 기다리며"  
포스터 앞  
어색한 표정으로 찰칵거리는 낮선 그녀

도깨비 등불  
파노라마 야경  
김밥 터지듯 쏟아지는 물결에  
겉먹은 토끼 눈을 굴리며  
문 닫고 살아온 촌뜨기  
8차선 횡단보도 위에서  
동 서 남 북 해매고 있네.

## 화마

금 밖으로 밀려난 그대들  
구멍난 대답은 불길 속에 녹았는지  
맥박 한올 남김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당신들 떠난 빈자리  
금테 두른 바람만 날아들어  
뒤북치는 나팔소리 요란하다

어젯밤 쓸고 간 화마 속  
사라져간 희미한 빌딩  
어느 곳에도 열리지 않아  
더디게 흐르는 하루  
진종일 어둠뿐이고

밀려드는 의심 덩어리  
커져만 가는데  
날뛰던 날다람쥐 어디 숨어두고  
피 흘리는 민초의 살풀이만  
샤그라드는 잿더미가 되어 갈 뿐

먼 ~길  
바보박스 바라보는  
아우성  
꺼져 가는 초침 소리에  
그대들 영혼 달래는  
국화 한송이  
부활의 종소리 심는다.



차 복 순

- \* 전남 고흥출생
- \* 국립 순천대학교 졸업
- \* 월간 "문학세계" 등단
- \* 계간 "문학춘추" 신인상
- \* 고흥 작가회 정회원
- \* 전남여류 문학회 정회원
- \* 문학세계 문인회 정회원
- \* 문학춘추 작가회 정회원
- \* 제20회 문학세계 문학상 수상
- \* 제21회 문학세계 본상 수상
- \* 시집 <꽃이 되고 싶었다>
- \* 공저 <시간과 맥박과 노을>, <봄을 뜨는 마음으로>

## 정하신 때에 피는 꽃

윤기욱

겨울의 끝자락에서  
천국환송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득한 식탁 앞에 앉으니  
희미한 웃음이 나고  
마음은 고요히 평안하다

맑고 따스한 봄바람  
살랑이는 꽃바람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매화 향기를 부른다

가슴 가까이 스며드는 꽃내음  
과역면 인학마을  
축제를 향해  
버스 차들이 즐지어 선다

두꺼운 외투를 벗어 던지고  
봄의 시작을 여는 하늘 아래

가쁜 숨으로 언덕을 오르며  
금방이라도 터질듯  
콩닥이는 붉은 입맞춤

드넓은 산등성이  
매화꽃 바다 앞에서  
숨길수 없는 따스한 한 페이지를 넘긴다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당신이 정하신 때에 피어나는 꽃  
그 그윽한 향기  
이제는 내 안방까지 따라온다

## 행복이 머무는 곳

부모님 기도로 살던 슬레이트집  
커다란 무화과 나무엔 손이 닿았고

새와 이웃들 달콤함을 나누며  
청포도 주렁주렁 목단꽃 방실방실

장독대 오르내리며  
아이들 발이 자랐다

봉황산자락  
하얀 나의 이층집

커다란 통유리창을 통과한  
푸른 새소리가 손짓하는 보금자리

사랑을 배우고 흘려보내는  
꿈의 궁전  
손자들 뛰노는  
분수같은 웃음이 들썩인다

바깥일에 지쳐 돌아와도  
말없이 나를 받아주는 곳  
소리 없이 눈물 흘려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는 곳

밀레의 만종이 울리면  
기도가 쌓여간다

집안 가득



윤 기 옥

- \* 전남 순천 출생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 월간 한맥문학 시부문 등단
- \* 시집 <첫사랑 페페>
- \* 고흥작가회 회원
- \* 한맥문학동인회 회원
- \* 전남여류문학회 회원
- \* 공저 <시간과 맥박과 노을>, <봄을 뜨는 마음으로>

## 정원이 주는 것

정 미 현

이름 모를 씨앗 잔뜩 뿌려놓고  
오랜만에 마주하니

한 발짝 나서면 넓은 세상인 걸 모른 채  
처음 누운 그 자리 지키면서  
어둠 속에서 게으름 피지 않고

기지개 켜며 좁은 틈 비집고 나와  
가느다란 몸 대가족이 되어  
어서 오라 왜 이제오나  
춤을 추며 반기운다

예쁜 꽃 보겠다고 욕심을 부렸구나  
마음이 바빠지고 손은 분주해진다

폭신한 자리 넓은 땅 내어주고  
시원한 물줄기로 곱게 단장해 주니  
초록 옷 사이로 하얀 이 드러내고  
환하게 웃어주는 너희들

가끔 찾아와도  
계절을 활짝 열어젖히고  
주연으로 멋진 공연 펼쳐주렴

## 꽃길 따라

새로 산 등산화 끈 단단히 조여 매고  
한 발 내딛는 발걸음 앞에  
숲의 향기가 먼지와 손을 잡는다

이제 막 펼쳐 든 지도  
배낭은 가득 묵직함이나  
시선은 벌써 저 멀리 능선을 달려가고 있다

거친 숨 참아내며  
탁탁탁 돌부리 쪼아대다  
움씩달씩 못하게 갇히고 말았다

바람이 걷어찬 이불 사이로  
드러난 단단한 근육은  
치열히 살아낸 핏자국

숲이 내어주는 푸르름  
계곡의 선율에 노래하는 작은 몸짓에  
꽃길 따라 걷고 걷는다

\* 탁탁탁 : 스틱 짚는 소리.  
\* 단단한 근육 : 나무가 바위에 뿌리내림.

## 오래된 미래

깨끗하게 잘 말린 짚을 깔고  
폭 익힌 노란 콩을 시루에 담아  
두꺼운 솜이불로 따뜻하게 감싸  
3일 후 열어서  
실처럼 쭉~욱 잘 늘어나면  
잘 띄워졌다며 미소 짓던 어머니

어린 시절 따뜻한 아랫목 차지하고  
귀귀한 냄새 풍겨  
옷에 땀이며 투정 부렸던 청국장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나게 해 줄 보약의  
구수한 향기임을 몰랐던 철부지

바실러스균을 몰랐어도  
37~42도의 적정 온도  
중간에 열어봄 없이  
잡균의 번식도 막아야 하는  
까다로운 공정을 어떻게 해내셨는지

## 노오란 시간

김영화

발효라는 이름으로  
기다림의 미학을 배운 나

오래된 미래가 되어  
서툰 솜씨로 익어갑니다

향아리 속 시간이 고요히 숨을 쉰다

기다림은 손을 놓지 않고  
천천히 익고

갈라진 메주 살결 위로 보이지 않는 균들이 맛을 만든다

대두의 깊은 향처럼  
사람의 마음도 시간을 지나며 달라진다

한 나절이 휘리릭 물 한 바가지 둘러주면  
하얀 숨 토하며 웃는다

뜨거운 낮이 지나고  
밤이 되면 나는 달빛을 너의 얼굴에 붙여준다

나도 팩 한 개 붙이고  
잠을 불러본다

우리 늙지말고  
같이 익어가자



정미현

\* 전남 순천 출생  
\* 순천대학교 평생학습 시청작반  
\* E-mail\_job2819@naver.com

아궁이 불씨는 아직 따뜻하고  
새벽잠은 얇게 흔들린다

너를 맛보고  
행복이란 기다림을 배우는  
발효의 시간

## 낙화 위를 걷다

나는 오늘 꽃길을 걷는다

밤새 내린 봄비에  
만개한 벚꽃잎들이  
제 몸을 날려  
내 앞에 길을 놓았다

생의 가장 화려한 낙화  
차마 디딜 수 없어  
나는 까치발로 지난다

부디  
내가 닿는 이 순간이  
너의 끝이 아니기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서로의 길을 품어  
빛이 되어 주었나 보다

막 태어난 초록빛 숨결이  
내 눈을 맑게 밝히고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심 없이 나를 부른다

나는 너를 따라 올라가며  
너의 시작을 묻는다.



김영화

- \* 대전출생
- \* 푸른 날의 추억 동인지 출간(2021)
- \* 문학고를 시문학 등단(2023)
- \* 순천여성문학회 회원
- \* 순천민화협회 회원
- \* 나눔의 집 작은 도서관 운영

## 장을 주오

김미영

간장을 주든지  
된장을 주든지  
장을 주오

장을 좀 주오

숨 죽이고  
간할  
장 좀 주오

거친 풀더미  
시는 곁절이

중발 밖으로 뺏치는  
말들을 어찌리오

부탁이오  
부디 장물 뿌려  
장을 지겨주오

무례한 언어들  
길들여주오

## 서툰 초대

장미 지고 나면  
장마 오겠지요

우리 집에 오세요

장미 울타리 너머  
장마 같은 여자 집

초대는 유효했어

너보다 길게 머문  
네 긴 우산  
배웅도 길었지

울타리 넘어, 너  
울타리 너머  
아! 로즈힙

장미는 지지 않아  
장마를 기다리지

풀물 들인 구슬발 드리우고  
장마를 맞이하지

장대로 내리쳐도 핏빛 입술  
장마를 부르지

떠날 때까지 기다리지

긴 환송사를 준비하지



김 미 영 \*순천 거주  
\*새가 부러운, 매일 노래하는 사람

---

## 시우림 연혁

- l 2024.05.18. 문학기행(순천만문학관)
- l 2024.06.11. 문학동우회 시우림 발족  
고문 이선애 명인아 / 회장 최상경 / 사무국장 이영옥
- l 2024.10.01. 문학기행(장흥천관문학관)
- l 2024.12.07. 제37회 전남백일장 수상  
(산문부 차상 이영옥, 운문부 차하 정현성, 김성곤)
- l 2024.12.17. 정기총회
- l 2025.02.25. 1분기 총회
- l 2025.05.10. 영광찰보리밭 축제 시상  
(대상 최승민, 최우수상 김성곤)
- l 2025.05.24. 문학기행(별교 태백산백 문학관)
- l 2025.05.31. 최상경 시우 <네모 속에 들어온 달> 시집 출판기념회
- l 2025.06.17. 2분기 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 l 2025.08.26. 이선애 시인 초청 북콘서트 개최(여수공항)
- l 2025.09.26. 김성곤 시우 <토란꽃 향기가 필 때> 수필집 출판기념회
- l 2025.11.14. 여성문학회 및 시우림회원 시낭송
- l 2025.11.15. 문학기행(순천만문학관)
- l 2025.12.09. 2025년 정기총회(소담소반) 및 신입회원 환영식
- l 2026.01.14. 박해달 회원 신춘문예 당선
- l 2026.01.27. 2026년 1분기 총회 및 연간 사업 계획 협의
- l 2026.03.16. 2026년 순천시 문화예술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 시우림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문학동우회 시우림(詩友林)”(이하 본회라 칭함)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순수문학, 시 창작활동에 전념하며 회원의 자아실현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의 위치는 순천시에 둔다.

###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국립순천대학교 평생학습과 시창작반 졸업생과 수강생으로 구성한다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정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6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니며 총회에서 정한 입회금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의 및 행사 참여 및 작품 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입회) 본회의 발기와 동시에 발기인은 정회원으로 등록되며 발기인을 제외한 회원 입회는 제4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제20조 의결정족수에 따라 입회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4. 년회비를 2회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제명) 본회의 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또는 본회의 목적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제명을 할 수 있으며, 제20조 의결정족수에 따라 처리하며 가입비와 년회비는 자동 본회로 적립된다.

**제11조(회원의 재가입)** 본 회의 회칙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 또는 제명된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단, 정기총회에서 재가입 논의 후 그 재가입이 결의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구성)**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장, 사무국장, 감사를 두고,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업무를 관장하며 회의록 작성 및 회원 원고의 수집 등 실무를 담당한다.
3. 감사는 본 회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4. 고문은 본 회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기하고 회원의 문학적 역량을 키우며 지도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선)** 임원이 임기 중에 궐위된 경우에는 3월내에 총회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하여야 하며, 그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본회 명예를 훼손하거나 본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임원의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해임결의는 제20조 의결정족수에 따라 가결한다.

### 제4장 회의

**제18조(구분)**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분기별 총회를 개최한다.

**제19조(시기)** 본 회의 개최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분기별총회는 3월, 7월, 9월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의 요청시, 회원의 3분의 1이상 요구시 회장이 소집한다
4. 회의 1주일 전에 시간, 장소, 회의 내용을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한다.

**제20조(의결정족수)** 본 회의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의결사항)** 각 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①항~⑥항)
2. 분기별총회(④항~⑥항)
  - ① 감사 보고서 처리에 관한 사항 및 예·결산 승인에 관한 건
  - ② 회칙의 변경 및 본회의 해산에 관한 건
  - ③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건
  - ④ 신입회원 인준에 관한 건
  - ⑤ 본회의 사업 및 활동 계획에 관한 건
  - ⑥ 기타 주요사항

**제22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

**제23조(회비)**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비를 둔다.

1. 연회비 : 상반기 5만원, 하반기 5만원으로 한다.
2. 임시회비 : 필요시 회원의 의결에 따라 거출할 수 있다.

## 시우림 회원

연번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비고
1	이선애	010-9882-3151	sunae0061@naver.com	고문
2	명인아	010-2609-1837	myoungina0@daum.net	고문
3	김성곤	010-7743-8023	rkdmfghksrud@naver.com	회원
4	김용기	010-5177-3309	kyk20000@hanmail.net	회원
5	김정수	010-2519-2664	zion3484@naver.com	회원
6	박해달	010-6693-2194	mi8623@naver.com	회원
7	윤석미	010-4167-8286	ysm8285@nate.com	회원
8	이금희	010-8886-3829	cherry_scent@naver.com	회원
9	이승아	010-2534-4779	lss82111@naver.com	회원
10	이수미	010-4613-2206	ryrak20@daum.net	회원
11	이영옥	010-5249-5690	happy4013@naver.com	사무국장
12	정현성	010-9100-2570	hsung557@hanmail.net	회원
13	조수연	010-9220-9539	yeon9220@hanmail.net	회원
14	최상경	010-3647-5843	skskchoi@hanmail.net	회장
15	최승민	010-9388-9507	choism3385@naver.com	회원
16	최학윤	010-5688-8956	hyc5126@naver.com	회원
17	하정인	010-4037-4093	uni@airport.co.kr	회원

3. 가입비 : 가입일 기준 회비 잔액의 1/n(만원 단위) 금액을 정한다. 단, 2027년부터 적용한다.

3. 회비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임의 탈퇴 및 자연 탈퇴시 이미 납부한 회비를 반납을 요구할 수 없다.

제24조(기타수입) 독지가 및 단체로부터 찬조금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지출) 회비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본회의 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2. 문학동인지 발간 및 문학기행 등 사업 지원
3. 기타 지출이 필요한 경우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제26조(보관 및 관리) 본 회의 모든 재정관리는 통장으로 하며 통장 관리 는 총무가 한다.

제27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28조(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하여야 하며, 정기총회에서 결과 보고를 한다.

## 제6장 사업

제29조(행사)

1. 본회는 문학동인지 <시우림>을 발간할 수 있다.
2. 회원의 친목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문학기행을 할 수 있다.
3. 기타 문학 강연회 등의 행사는 회원의 결의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

## 제7장 부칙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24년 6월 11일 제정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시우림 2026·제3호

지 은 이 문학동우회 시우림  
발 행 인 최상경  
편집위원 최상경 이선애 명인아 이영옥  
디 자 인 신영인쇄기획  
발 행 일 2026년 6월 15일  
만 든 곳 신영인쇄기획  
전남 순천시 안신기3길 8  
T,061-752-6600  
출판등록\_제482-2003-000001호

비매품

ISSN

\*이 책은 2026년 순천시 문화예술과 보조금 지원사업의 후원을 받아  
출간하였습니다.

